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다음 10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주년 기념 대담집

목차

들어가며		4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년	설립배경 및 목적	7
	주요역할	7
	주요연혁	8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11
	사회문화예술교육	15
	미래문화예술교육	19
	정책 및 학술 연구조사	23
	연도별 사업분류표	28
주제별 대담	주제 1. 학교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변화와 흐름	32
	주제 2.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	42
	주제 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	52
	주제 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의미	62
	주제 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성과와 과제	72
	주제 6.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발굴과 인큐베이팅	82
	주제 7.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1 -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92
	주제 8.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2 -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102
	주제 9.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112
	주제 10.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의 역할과 관계	122
부록	주제별 대담 참여자 명단	132

들어가며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 1월 설립과 함께, 부산시로부터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파견사업,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201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예술강사·예술교육가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며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찾아나가기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직 구성으로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팀, 생활문화본부 내 문화교육팀 등으로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준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1~3명 이내의 필수인력으로 배치되어 문화예술교육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2014년 전국 최초로 지역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 추진, 2018년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주요 공모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2년~3년 연속 지원 제도 도입, 자치구·군의 유허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협력형 사업 도입,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 발굴 및 진입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형 신설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에 맞는 지원제도로 갖춰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토요스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의 기반을 다진 후 해당 자치구로 사업을 이관하여 사업이 장기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놀이마루 프로그램,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행정 아카데미 운영 등 사업 기획·운영,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산시교육청과 연계고리를 만들어가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다각화하고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센터의 주요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었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15년 국악분야 및 7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통합운영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도 확보하였으나 예술강사의 계약주체 일원화, 기타 운영의 개선을 통한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2017년부터 지역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무형문화재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지역 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사업을 지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예이론 도서 발간 지원사업, 지역출판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독서문화축제 운영사업 등 독서·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고 10년이 넘어가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부산의 차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 등 또 다른 도전 과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더불어 센터의 인적 자원들이 1년에서 3년 내외 단위로 바뀌어 오며 과거의 자료, 기록들을 찾아보는 것에 대한 한계와 함께, 그간의 센터 혹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다져보며 다음의 1년, 5년 그리고 10년을 어떻게 그려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주요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해오면서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성과와 실패 사례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공감하며 동지애를 쌓을 수 있는 자리가 자주 필요함을 항상 얘기해주셨습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센터와 함께 예술가로서, 예술강사로서, 예술교육가로서, 기획자로서, 문화예술행정가로서 기타 각자의 위치에서 부산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힘 써주신 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글로 남겨보고자 하였습니다.

센터 1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회로 제한적이었기에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하였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센터가 정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운영해나가며 현장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를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모시지 못한 분들께서 아쉬워하지 않으시고 더불어 이번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으시더라도 앞으로 저희 센터가 만들어 나갈 시간과 자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1. 설립배경 및 목적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의 현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201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부산문화재단이 지정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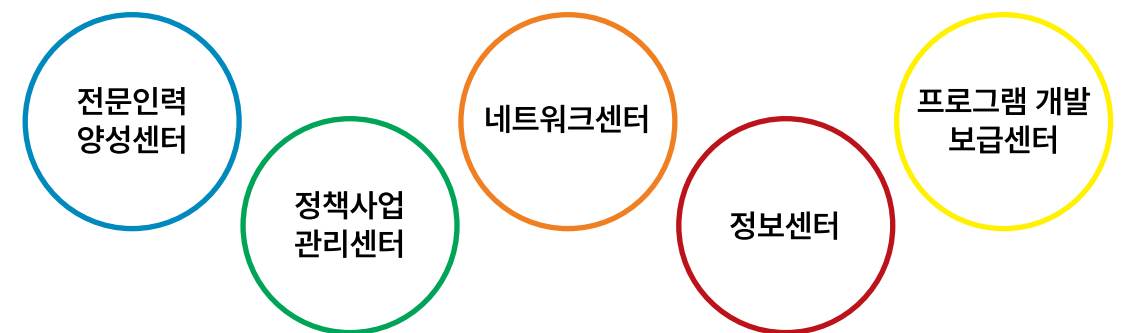
-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와 시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부산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산업 추진
-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지역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 육성
- ▷ 학교, 문화시설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확보 및 정보 공유 확대

2. 주요역할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의1 제7항에 의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준한다.

-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 교원의 연수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8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제9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제10조(문화예술교육사업)
 - 구·군,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와의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사업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3. 주요연혁

2010	5월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8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개관 (동구 수정동, 옛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사무실)
2011	2월	재단 조직기구에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신설
	10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전 (금정구 장전동, ㉞근영테크빌 지정기부)
	11월	부산문화예술교육증장기 발전계획 수립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 박창언)
2012	10월	재단 조직기구에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내 문화예술교육팀 신설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2013	10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전(남구 감만동, 감만창의문화촌)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선정심의 과정 전체를 광역센터가 주관 (2011년 1차 심사: 교육진흥원 주관, 2012년 2차 심사: 교육진흥원 및 광역센터 공동 주관)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기획공모형으로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프로그램 최초 지원 (2차 추가공모시 반영, 흥티창작공간, 사상인디스테이션, 강서문화원 등 거점공간 활용 제안)
2014	1월	부산시교육청 ‘2013년 토요스쿨 운영 우수기관’ 선정
	2월	지역 인문학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담당
	○	전국 최초 지역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 ‘부산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 (대안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김희재) >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부터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기획공모형 3년 연속 지원 최초 도입
2015	1월	부산시교육청 ‘2014년 토요스쿨 운영 우수기관’ 선정
	3월	재단 조직기구에 문화교육팀 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둠
	10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개선(계약주체 일원화) 요청 및 조치 촉구 (16개 광역센터 공동대응)
	○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을 사하구로 이관 (2010년~2014년 센터가 운영)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센티브 사업 8천만원 확보 (국악 및 7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2016	1월	학예이론 도서 발간 지원사업, 지역출판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담당 (예술진흥팀→문화교육팀)
	6월	부산시교육청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및 독서문화축제 운영사업 신규 확보
	8월	부산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소외계층 방과 후 문화예술교실 사업에서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형 신설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 발굴 및 진입 지원)
2017	1월	지역 인문학 활성화 지원사업, 학예이론 도서 발간 지원, 지역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3개 사업 통폐합되어 ‘독서 인문학 활성화’ 사업 담당
	○	2012~2014년 활동 예술강사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업무 수행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규 지정-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2016년까지 센터가 운영)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체계 변경 (문체부&지자체→부산문화재단→신규운영단체: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2018	2월	부산시교육청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확보
	3월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중 ‘Boom Up, Skill Up’ 사업 담당
	○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참여 종목 확대 (부산농악, 수영야류, 동래학춤 → 다대포후리소리, 부산고분도리걸림, 수영지신밟기 3종목 추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형 2년 연속 지원 도입 (2년 운영 기준 프로그램 기획, 부산형 브랜드 이미지 구축 지원)
	○	가을독서문화축제 사업 및 세계인문학포럼 부대사업 운영
	○	2018~2022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지원
2019	1월	2018~2022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안 발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합 (광역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전체 사업 담당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3개 신규사업 확보
2020	2월	부산시 북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꿈꾸는 예술터) 1차 심사 선정
	12월	부산시 북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꿈꾸는 예술터) 북구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
2021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이관 (문화교육팀→문화공유팀)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 “지역 프로젝트형” 신설, 인큐베이팅형 폐지
	○	도시철도 북 하우스 사업 종료

1.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합니다. 기존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기능적 교육과 달리 문화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 창의성, 문화예술 감수성 등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 제가목>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1)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구. 소외계층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2009~2010년에는 예술강사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 서구화,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강사를 파견하여 어린이들에게 무형문화재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학교 내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정규교과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18년 무형문화재 분야 확대

- 2017년까지는 부산농악, 수영야류, 동래학춤 3개 분야였고 2018년부터 부산농악, 수영야류, 동래학춤, 수영지신밧기, 부산고분도리걸립, 다대포후리소리 6개 분야로 확대

• 2021년 학교부담금 폐지

- 2016년부터 강사비 일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가급적 많은 학교, 많은 학생들이 지역 무형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2021년 기준, 1개교 당 총 48시수 운영 지원, 강사비 전액 재단 부담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0개교 지원, 총 5,925명 학생 참여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동래학춤 (2020)



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010~2016)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인성과 감성개발 등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무용, 연극,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7개 분야) 2015년 예술강사들의 계약주체 일원화에 대한 공론화, 16개 광역센터의 공동대응 등으로 2016년까지 사업 운영을 센터가 담당하였고,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이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로 지정되면서 2017년부터 연합회가 운영 중입니다.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16명의 예술강사가 267개교에서 활동

• 예술강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량 강화



학교 예술강사 연수(2015)

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부산국악협회가 위탁 운영하였고,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달리 운영예산 재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운영 주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 단체로 이관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체계가 변경되어 센터에서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로 사업예산 전액을 교부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며 강사 배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28명의 국악강사가 240개교에서 활동

• 기획프로그램 추진

- [학교방문예술단]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방문 국악공연 및 국악기 체험
- [국악캠프] 놀이와 교육을 겸한 다양한 국악체험 활동으로 구성, 초등학생, 북한이탈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악에 대한 친밀도 향상을 목적으로 시도
- [국악강사 자율연구모임] 교과 연구, 수업 내용 공유 등을 통해 강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효과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 마련

4)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2016, 2018)

서면 중앙중학교가 이전한 뒤, 학교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2016년, 2018년 2년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진로 융합형 문화예술체험 활동 등으로 학생역량 개발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진로체험 외에도 교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 진로 융합형 체험 프로그램 총 215개교, 29,840명 학생 참여

- 2016년 62개교, 9,586명 2018년 153개교 20,254명 참여



놀이마루
진로융합형 프로그램
(2018)

“학생들이 국악기 연주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우리 소리의 선율을 익숙하게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대포 후리소리를 전 과정 경험함으로써 노동요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어 우리 문화와 음악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참여학교 선생님

“기회가 되면 또 배우고 싶어요, 부산농악을 배워서 외국 친구들에게 공연 했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참여학교 학생

“토끼와 거북이 판소리가 너무 재미있었다. 판소리 추임새를 현장에서 배워 아동들이 박수치고 노래도 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다른 공연과 차별화가 느껴졌다.”

2012 학교방문예술단 참여학교 선생님

“다양한 분야가 함께 서로의 교육방법을 공유하여 새로운 분야의 교수법을 알게 되었다.”

2015 학교 예술강사 연수 참여 예술강사

“패션디자이너가 꿈인 저에게 제 꿈에 한발 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체험하기 어려워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2018 놀이마루 프로그램 참여 학생

“표현무용은 학생들이 가위바위보 저서 왔다 그런다. 처음엔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왔을 때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래도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보면 대부분 ‘무용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혹은 무용 장르의 이해, 움직임의 단단히 케이팝화하지 않는 것 등이 수업에서 배운 걸 작게 좋아하는 애들부터 크게 좋아하는 애들까지 다양했다.”

2018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강사

2. 사회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부터 지역주민이 자발적 문화향유자·소비자·생산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매개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 제나목>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5일 수업제가 확립됨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가족 중심의 건전한 주말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역적 문화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밖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 프로그램도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토요일 프로그램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일요일 및 공휴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확장하고 여가문화를 뛰어넘어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7개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최소 2012년 9개 프로그램, 최대 2016년 58개 프로그램 운영(연간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건수 상이)

• 2016년 인큐베이팅 지원 유형 신설

- 부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업 관련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페스티벌 (2015)



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문화예술교육을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과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역 정착화를 도모합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자원 및 학습대상 특성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 아카이빙 등 지역주민·공동체와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년지원제도 도입을 시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8개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최소 2020~2021년 각 9개 프로그램, 최대 2013년 46개 프로그램 운영(연간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건수 상이)
- 2010년 19개, 2011년 16개 프로그램 지원 별도(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단체 선정 추진)

• 2014년 다년도 지원 유형을 최초 신설하여 공모 추진

- 우수문화예술교육단체(2011~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연속 수행단체)를 대상으로 중장기적 프로그램의 3년 연속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선정단체 없었음
- 2021년 지역프로젝트형으로 3년 연속 지원 유형을 새로이 추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014)

3) 유아문화예술교육

2019년 국가수준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예술경험 영역)'에 기반한 만3~5세의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어 시작된 정책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시설과 예술단체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유아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들이 시설을 방문, 시설 특화형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유아교사 대상의 직무연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개 문화시설 지원

- 2019~2021 영화의전당, 2020~2021 디오티미술관, 2019 부산현대미술관

4)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2010~2014)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문화적 소외 아동과 청소년에게 음악적 소양을 기르고 오케스트라 악기를 체험할 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을 거점으로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요 실행단체로 운영하여 왔으며 사업운영의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사하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등 65명 내외 아동·청소년 참여



꿈의 오케스트라 (2013)

5)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2019~2020)

2018년 예술동아리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작된 정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년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센터에서 운영되다가 다시 재단 문화공유팀(생활문화 활성화 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6) 독서·인문학 활성화 관련 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인문학적 소양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에 따라 독서 및 인문학 관련 사업이 센터의 역할로 재정립됨에 따라 2015년부터 담당하였습니다. 학예이론 도서발간 지원, 지역출판문화 및 작은 도서관 지원, 지역 인문학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사업간 통폐합 과정을 거쳐 2021년 최종적으로는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사업과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2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과·효율성을 향상하고자 2022년부터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은 무상임대 기간의 종료와 함께 202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외 가을독서문화축제 사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학교 밖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물꼬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생들의 오빠 혹은 형으로서 또 친구로서 고마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또 연극을 통한 작은 성취감이 자신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이는 연극단” 참여학생 학부모

“친구들과 집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란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다.”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인문학, 삼시세끼를 차리다” 참여 강사

“수업이름이 왜 팝콘일까 궁금하였습니다. 매주 재미있는 수업들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수업이라서 이름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수업을 하나 싶는데 과학수업을 하고, 과학수업인가 보다 싶으면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니 좋았고 그중에서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파바팝 팝콘AR: 예술냄비에 과학기름을 둘러 창의팝콘을 튀기다.” 참여 학생

“문화예술교육의 힘은 대단하다. 사람들을 상상 그 이상으로 변화시킨다. 누군가 수업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면 한 사람이 ‘집중의 박수’를 외친다. 그럼 모두 하나가 되어 ‘ 짹짹’ 손뼉을 맞춰 박수를 친다. 작품제목 하나 붙이는 것,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 하던 학습자들은 이제 먼저 하겠다며 손을 든다.”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청년문화, 세상을 담다!” 참여 강사

“무엇보다 수업시간 중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내겐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는 정도의 위로가 되었다. 지금 돌아보니, 우울증을 앓던 내게 치료로써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도 부득이한 일로 딱 한 번 빠진, 전설적인 출석률을 갖고 있을 만큼 난 이 시간이 좋다”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꽃춘, 시(詩)가 꽃피는 마을” 참여 주민

“엄마들이 배우고 습득했던 예술이 아닌 아이들 수업으로 인체체험과 활동으로 예술영역이 확대되며, 어릴 때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사고의 확장을 배운 것 같아 고맙습니다.”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유아 부모 연수-우리 집, 숨은 예술찾기” 참여자

3. 미래문화예술교육 /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STEAM 교육(Scei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주5일제, 자유학기제,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기후변화·위기, 초고령화, 인구소멸,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등 지난 10년간 지역사회가 맞닥뜨린 다양한 환경, 제도적 변화요인들에 대응하여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1) 창의체험 및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예술과 과학의 융합으로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발굴된 인적자원은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의 수행을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2011~2012) 중·고교생 대상의 공연, 영화 등 예술에 접목된 과학기술을 발견하고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3~2015)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뉴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자, 예술강사, 교사의 협력체계 시도



창의체험 (2012)

2)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제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창의성, 상상력 등의 배양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미래지향적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9년 시작된 정책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성장과 함께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보다 새로운 영역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인프라와 생태계를 풍성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농악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아이(AI)농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국립부산과학관 연구진과 예술가·예술교육가의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아트사이(ArtSc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전문가 연구 실험 랩, 문화예술교육 단체 오픈 랩, 아이디어 발굴 랩, 아카이빙 랩 등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 연간 3개의 Lab 형식으로 운영



창의예술교육 랩
아이AI농악 (2020)

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적극적 형태의 교육사 활용 모델로 교육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어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사업입니다. 교육사의 현장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 제공으로 경력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6~7개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각 1명 채용 지원
- 최근 3년 사업 참여 시설, 총 11개 (가나다순)
 - 금정문화재단(2), 낙동강문화관(2), 디오티미술관(3), (주)동일DRB campusD(1)
 - 북천박물관(1), 부산시립미술관(3), 부산시민공원(1), 부산박물관(1), 부산영화체험박물관(1), 영화의전당(3), 정관박물관(2)

4) 부산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역량강화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기획자 아카데미,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민 대상 프로그램과 예술강사, 예술교육가, 예비인력 등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체험, 워크숍뿐만 아니라 역량단계별 연수과정을 연구·개발하여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자율연구모임 운영, 주제심화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체계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부산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A(art).B(busan).C(culture) SCHOOL’을 개발하여 경험과 역량의 단계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
- 2021년 그간의 운영 현황을 재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연수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예술강사 연수 (2010)

5)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20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예술인의 예술창작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참여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안내하고 대리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부산에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예술활동증명 대행 서비스의 첫 시범 운영 사례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프로그램을 해보진 않겠지만, 다 치르고 났을 때 뭔가 지적 자극을 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공교롭게도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왜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났더니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 갈매기는 왜 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지? 왜 장구, 라고 외쳤는데 로봇이 내 말을 안 듣지? 이게 저는 좋았습니다. 교육은 하루만에 끝났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하게 된달까요. 왜 그랬을까, 하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적 자극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합니다.”

2021 창의예술교육랩 아이(AI)농악 전체회의,
베리테, 정진리

“음악을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본인이 만든 향성들을 보면서 몸을 흔드는 것들이 훨씬 더 예술적이었고, 더 많은 대화들이 과학을 바탕으로 다르게 보기, 비틀어 보기,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아주 좋았다. 올해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21 창의예술교육랩 아트사이 전체회의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이정임

“다양한 장르와 연차의 문화예술교육단체가 모여 공통의 주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고 개발된 모델을 시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주 바람직하며 지속적으로 필요함”

2021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모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중

“올해 2년 차에 들어서는 부산 센터는 지역 예술가와 지역 기관의 협업과 융합에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작년 부산국립과학관과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은 2년 차 연계 개발로 이어졌다. 부산과학관과 5개의 예술가 단체가 멘토-멘티로 연결되어 진행한 심화과정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그에 대한 협력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한다. 함께 한 성공의 기쁨이 2년 차의 심화과정을 더 즐겁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컨설턴트 현혜연

“사업을 참여하기 전에는 단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예 기관에 속해져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예사롭지 않은 인터뷰” 중,

북천박물관 문화예술교육사 송송이

4. 정책 및 학술 연구조사 / 신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영

부산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 행정제도 등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 전문가,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학술연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 정책 및 학술 연구·조사

• 2011 부산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발전 비전, 활성화 및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부산문화재단 비전 2020과 연계하여 활용되었습니다.

• 2014 부산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

-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문화예술교육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정리한 부산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입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이 될 무렵인 2004년부터 10년간 부산문화예술교육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도입기, 정착기, 전환기 3개 범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2018~2022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기초연구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으로 2018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2022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과제를 지역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연구

-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2020 부산 유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2020 지역문화자원기반 문화예술교육 연구-어린이 무형문화재교실의 성과와 발전 방안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를 위한 사람과 공간과 예술의 융합 프로젝트로 지역의 유휴공간과 인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창작과 교육프로그램 진행으로 '공간(장소)'을 통한 지역에 대한 재발견과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 및 지역기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수준 높은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 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 또한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기획으로 실행의 내실화 및 장기 지속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사업결과물을 아카이빙하여 사회 환원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 2016년 강서프로젝트 서낙토리, 2017년 감지덕지도 동래, 2018년 아미 팜 프로젝트 등 3개 프로그램을 자치구, 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기타 프로그램 연구·개발

- 2010~2013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사회 및 교과연계, 통합교과 등 주제
- 2017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극과 무용 중심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부산형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모델 제안
- 2017 지역 전통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 전통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안 중심 개발
- 2018 50+를 위한 디자인씽킹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공감을 위한 공간
- 2020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도출
- 2021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 교육 프로그램 및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보안을 위한 청년·생애전환기 대상 교육 프로그램(총 4건)

3) 공간 문화예술교육 (2019~2021)

지역의 소외되고 오래된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재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공간을 매개로 한 "사람-공간-콘텐츠"의 유기적 순환을 통해 2019년 재단 위탁운영 시설과 오래된 아파트부터 시작하여 2020년 빈집, 2021년 폐교 등을 활용하여 부산형 공간문화를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인 문화예술교육"을, 2021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2019 "수정아파트 프로젝트" 및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 공간지원형은 재단 위탁시설인 한성1918,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사상인디스테이션, 조선통신사역사관 등 5개 시설을 거점으로 개인융합형 6팀과 커뮤니티형 4개 팀을 지원

• 2020 빈집 및 빈 건물 활용 "빈방의 서사(敍事), 다섯 가지 이야기"

• 2021 폐교 활용 "소행성 42PX+5H"

공간 문화예술교육 -
빈방의 서사(敍事),
다섯 가지 이야기 (2020)



공간 문화예술교육 -
소행성 42PX+5H (2021)



“서낙토리 프로젝트 참여작가들과 주민들이 비료창고에서, 신장로에서 어떤 일들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이 신장로에서도 편하게 누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다.”

2016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서낙토리’
결과자료집,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낯선 이들이 이 문을 열고 선뜻 먼저 들어왔다. ‘나는 항상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언제 오면 되냐’고 문의하셨다. 바로 옆 같은 길에 사시는 추봉래 할머니이 이곳에 오셔서 처음 프로그램을 신청하셨을 때 굉장히 기뻐던 기억이 난다.”

2020 공간문화예술교육 ‘빈방의 서사, 다섯 가지 이야기’
중 ‘안으로의 길 장림’ 작가 김보경

“폐교 좌천초등학교를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에 굉장히 놀랐고 흥미로웠습니다. 공간을 통해 새롭고 특이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세상에 몰입하게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강점입니다. 공간이 상상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야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 공간문화예술교육 ‘소행성42PX+5H’
라운드테이블,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조영미

“연구 프레임과는 관계없이, 세계적인 예술, 예술교육의 트렌드를 보았을 때, 나빌레라 프로젝트 (2021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가장 트렌드하고, 가장 좋은 형태의 예술교육이다. 첫째로는 참여자의 요구, 참여자 맞춤형 수업이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눈높이 목표와 눈높이 수업 내용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2021 예술교육 온종일파티 오픈토크 컨설팅 중,
홍익대 Si미술관, 박남희

5.기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산의 문화예술교육 지형을 만들어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중앙부처 관계 기관 및 지자체 외에도 부산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지역대학 연구소 등 각종 유관기관 관계자와 MOU 체결, 자문회의, 라운드테이블, 문화예술교육DAY 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 및 자원의 아카이빙을 위한 웹진, 전자아카이브 등록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인력양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전문인력 및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과 프로그램 아카이빙 기능이 접목된 온라인 플랫폼 bsarte.bscf.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 주제별 시도되었던 현장과 국내외 사례를 나누어 발전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우리/지역/테크/공간 4개 주제의 문화예술교육 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6. 연도별 사업분류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교 문화예술교육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놀이마루		놀이마루				
사회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교육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인문학 활성화 지원			지역인문학 활성화 지원		독서 인문학 활성화 지원				
						지역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학예이론 도서발간지원							
							도시철도 북하우스 운영						
							가을독서문화축제						
미래 문화예술교육 & 인력양성 역량강화	창의체험교실(창의체험문화예술교육)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						창의예술교육캠프			
			예술인취업 지원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인턴십)			
	자율연구모임									자율연구모임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기획자/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연수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연수 시민/어린이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강사/교원/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세계유산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인력연수	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			
정책 및 학술연구조사 & 신규 프로그램 연구개발	부산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부산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꿈다락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	유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공간 문화예술교육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연구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연구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네트워크, 정보아카이빙 및 홍보	클로카움 전자아카이브 웹진발간	자문위원회운영 네트워크워크숍 전자아카이브 웹진발간 해외통신원	문화예술교육데이 자문위원회운영 전자아카이브 웹진발간 해외통신원					실무협의회운영 네트워크워크숍	문화예술교육데이 지원협의회운영 자문위원회운영	플랫폼구축	플랫폼운영 라운드테이블 창의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플랫폼운영 라운드테이블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 센터에서 직접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명시되었음.(ex.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사업은 2011년부터 재단이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 명시)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다음 10년

주제별 대담

주제 1. 학교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변화와 흐름

주제 2.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

주제 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

주제 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의미

주제 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성과와 과제

주제 6.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발굴과 인큐베이팅

주제 7.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1 -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주제 8.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2 -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주제 9.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주제 10.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의 역할과 관계

주제 1

학교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변화와 흐름

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변화와 흐름을 주제로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진행 방식과 현장에서 느낀 성과 및 과제에 대하여 장르별 예술강사와 학교 미술교사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오후 5시

진행 송교성 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1층 감만사랑방

함께한 사람들



권은화
국악 예술강사

국악대중화를 위해 국악 분야 예술강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예술아카데미 나빌레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공연 등 문화예술교육 활동 중이다.



김인영
센텀고등학교 미술교사

센텀고등학교 미술교사로 교육청에 관련된 미술 행사의 운영을 주로 맡고 있으며, 미술실을 아이들이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로 만들고자 한다.



노하나
사진 예술강사

부산을 기반으로 사진 교육을 10년 정도 하고 있으며 주로 학교에서 강의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꿈꾸는 카메라 팀과 함께 사진과 영화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다.



이연정
무용 예술강사

창작춤 단체 온댄스랩 대표로 기획 및 창작춤 활동을 10년 이상 이어오고 있으며, 익숙하면 서도 낯선, 낯설다가도 익숙한 움직임들을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조영숙
공예 예술강사

공예 예술강사로 12년째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공예 하나로 만들어지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의 깊이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송교성

오늘 주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변화와 흐름>입니다. **학교문화예술 관련 교육 콘텐츠는 2000년대 초반에 시행된 예술강사 파견제도를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으신 과목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영숙

저는 2011년부터 공예 과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처음 공예 과목을 만들 때 되도록 한국 전통공예에 대해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현대공예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는 초반에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약 10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 지금은 극소수의 선생님들 외에는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수업에 대한 제안도 먼저 해주세요. 요즘에는 변화하는 교육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 기자재의 경우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서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학생 수를 파악한 뒤 재료를 지급했으면 해요. 학교에서는 주로 소모성 재료를 주로 지급해주는데 저는 사실 공예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오븐이나 종이 재단기 같은 기자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기자재는 해당연도에 사용하고 나서 지원센터에 보관해둔 뒤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송교성

공예 과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통공예 수업을 기대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현대공예를 수업 구성에 넣으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조영숙

학교는 딱 내놓을 수 있는 전통적인 결과물을 원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과정 중심의 수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수업을 했으니 다음에는 저 수업을 하자'하고 의견을 적절하게 맞춰서 수업하고 있어요. 덕분에 과거보다 현재는 다양한 공예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인영

맞습니다. 학교는 결과를 중심으로 하려는 보수적인 성질이 강한데, 지난 10년 동안 그 틀을 깨부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일단 아이들이 즐거워야 하는데, 결과 중심으로 진행하면 아이들이 수업 과정 자체를 즐겁게 느끼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가 없어도 아이들이 수업 자체를 재미있다고 느끼면 그것이 바로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 교육 방식에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미술 수업에서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아이들과 함께 세우고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지휘자가 되어 수업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절반 정도만 제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고 채워가며 수업을 꾸리고 있어요.



이연정

무용은 크게 창작 / 우리나라 민속무용 / 외국 민속무용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수업 초기에 학교에서 받은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수업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않았어요. 관절로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손가락만 살짝 움직이고 끝나는 식이니 45분 수업이 5분 만에 끝나기도 해서, 제가 가르칠 때는 재미 없는 부분을 빼버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진행해요. 저는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하도록 수업을 유도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테크닉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본인이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하나

초기에 수업할 때 학교에서는 기술적인 교육을 많이 강조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하루만 가르쳐도 아이들이 다 습득해요.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라 저희보다 카메라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주로 카메라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예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기자재로 학교마다 카메라를 10대 정도 지급해줬어요. 카메라는 한 번 받으면 5~6년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에게 배분할 수 없어서 수업시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카메라를 썼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핸드폰 기능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서 지원받은 카메라 위주로 수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은화

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 방식의 증가로 인한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현재 음악 수업은 대면, 비대면 수업으로 나눠서 교육하고 있는데,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는

아이들의 음성을 확인하고 교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국악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은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문 놀이’ 같은 전통놀이와 ‘우리 집에 왜 왔니’ 등의 노래를 결합하는 방식처럼 놀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은데, 비대면 수업에서는 놀이와 노래를 결합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노래만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기악 / 가창 / 이론 / 감상 네 가지로 분류해서 국악 수업을 하고 있는데, 관악기 수업은 마스크를 벗고 호흡을 조절해야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아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수업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간혹 왜 연간계획표대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학교 선생님도 가끔 계세요. 지난 10년 동안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송교성

네, 장르별로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변화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의 흐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과 방식, 내용 등 각자 장르별로 활용하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영숙

저는 수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고 있어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작품 만들기에만 급급해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진 개성이 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무’를 주제로 잡은 뒤, 저는 그 주변에 뻗어있는 ‘가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어요. ‘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나뭇잎을 따서 스텐실을 이용해 카드를 만들며 폭넓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요. 하나의

주제 속에서 다양한 재료를 펼쳐놓고 마무리까지 하나의 작품을 완결하는 방식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이 많았으면 해요.

김인영

저는 아이들이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선 고민해요. 최근에는 ‘영상’을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VR, 메타버스처럼 아이들 사이에 화제인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은 강사진을 섭외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아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SNS로 소통하는 세대다 보니 온라인에서 서로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서슴지 않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미술 이론이나 평가와 관련된 수업이 별로 없을뿐더러 저 역시도 표현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비대면 수업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작품을 칭찬 혹은 조언하고, 때로는 저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비평의 측면을 강화하는 수업을 꾸려야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연정

저는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움직임을 다양하게 하거나, 공간 구성을 바꾼다든지, 짝지를 랜덤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계속 줘요. 그리고 저는 외국 민속무용을 가르칠 때는 그 나라의 역사나 특징, 기후나 문화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해 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민속무용의 맥락과 배경을 알려주고 춤을 가르치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무용 시간에 아이들 머리를 똑같이 묶게 하는데, 이런 방식은 아이들을 경직시키기도 하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들을 탐구하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이 수업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노하나

앞서 말씀드렸듯 요즘 아이들은 카메라를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카메라 기능은 하루만 가르쳐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하나의 매개체 삼아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사진이라는 매체는 온라인 수업과 잘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술 장르라 그런지 오히려 학교에서 단체로 촬영하는 것보다 혼자서 집중하는 방식을 더 재미있어해요. 아이들에게 집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라고 하면 개인 공간에서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계기로 학교에서 어려웠던 예술적인 감성의 발견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송교성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수업 기자재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나요? 교육 기자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하나

기자재가 지급되어서 사용은 하지만 비중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 지금은 스마트폰 70%, 디지털카메라 30% 정도 비율로 수업하고 있어요. 진흥원에서 초기에는 학교마다 카메라를 10대 정도씩 지급했는데, 학교 예산으로 구매한 기자재가 아니다 보니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강사가 직접 수업이 시작되는 3월에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카메라를 받고, 수업이 끝나는 12월에 센터에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권은화

요즘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나 참고자료가 다양해요. 비대면 방식이라도 이론 수업 혹은 감상 수업의 경우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대면 수업 못지않게 좋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좁혀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국악 수업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주고받으며 협동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개인적인 심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다 같이’에서 ‘나’로 초점을 바꿨을 뿐인데도 아이들의 예술적 기질이나 잠재력을 더욱 엿볼 수 있었어요. 협동작업은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을 따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전의 음악 교육, 국악 교육이 협동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 음악 교육이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송교성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예술교육 방법의 변화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예술강사로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느끼신 성과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은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문강사 처우 개선인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는 그냥 일반 강사가 아니라 전문강사인데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많은 노력으로 전문적인 커리어를 가지게 된 전문강사인데도 아직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영

저는 제가 못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예술강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가끔 예술강사의 역량이 못 미칠 때가 있어요. 학교나 대학원에서 만화를 전문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분이 만화강사로 오시는 때도 있는데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변화인 것 같아요. 선생님 중에는 간혹 예술강사가 본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앞서 기자재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영화 수업을 위해 진흥원에서 캠퍼터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학교의 재산으로는 등록이 안 돼서 관리의 책임을 맡을 사람이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기자재의 활용이 잘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하나

예술강사를 하면서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사진 수업을 해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10~20년 전에는 이런 수업을 학교에서 거의 받을 수 없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모든 아이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사진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1년 내내 하기 쉽지 않고, 아무래도 인문계보다 실업계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모든 아이가 보편적으로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기 힘든 과정이 많은데, 예술강사와 매칭해서 아이들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김인영

고교학점제는 현재 학교에서 수월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스스로 학점을 선택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사진 수업을 듣고 싶은 경우 10명 이상이 모여야 개설이 되거든요. 저는 진흥원에서 하는 예술강사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에서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모셔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연정

저는 현장에서 느낀 성과를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거 왜 해요? 성적 들어가요? 수행평가 해요?’하고 경계하던 학생들이 이후에 즐겁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데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들은 개성이 다양해서 각자 듣고 싶어 하는 수업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체육을 원하고 어떤 아이는 무용할 때 풀풀이 입기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서로 싫은 건 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협업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면 처음에 소극적인 아이들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죠. 학교 현장의 과제로는

송교성

그럼 이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은화

예술강사는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가끔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해주더라고요. 센터에서 강사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시고 즉각적으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2022년도에 심리·정서 안정 및 학습력 회복을 위해 그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내년부터 예술강사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조영숙

저 역시 학교 현장에서 가끔 부당한 상황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센터에서 직접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상담 코너에서 ‘그림 그려서 돈 되냐,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스스로없이 하길래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 일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얘기하니 센터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서 공문으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 혼자일 땐 해결할 수

앞서 언급되었던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에 좀 더 힘이 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담당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간혹 교원자격증 없다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술강사들이 조금 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이 교원자격증 못지않게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영숙

학교 예술강사 또는 아르데의 강사들이 학교와 사회에 파견되면서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문화예술교육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과제는 학교 담당 선생님과 팀티칭에 대한 것이에요. 저희도 각자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전문가지만 학교에서 교육할 때 필요한 교육 테크닉은 많이 부족해요. 예전에 어느 담당 선생님과 팀티칭을 한 적이 있는데 서로 모자란 부분을 메꿀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담임 교사가 교실에 함께 있을 때와 얼굴도 모르는 외부 강사가 와서 혼자 수업할 때,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매끄러운 수업 진행을 위해서 팀티칭을 강조하지만, 관심 없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팀티칭이란 게 저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좋고 아이들에게도 좋은데 이 중요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차원에서 팀티칭의 중요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없었던 일이라 참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내년에 부산 교육청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는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하나

예술강사들이 교무실에 출퇴근하지 않다 보니 전화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데, 전화로만 하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일하다가 재단 안에 강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기뻐요. 그리고 재단에 많은 분이 조직적으로 일하며 각각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방식도 좋고요. 다만 10년 동안 교육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조직이나 환경도 여기에 맞춰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이연정

예술강사와 학교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일을 빠르게 처리해주시더라고요.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학교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대변해주는 걸 보고 많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을 돌아해보면 학교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이 꾸준히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김인영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야 하고, 계속 바뀌어야 하는데요. 교육과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는 개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VR/AR 수업을 전문가들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담당 장학사에게 요청해서 따낸 일이다 보니 부산에서는 저희 학교만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수업인데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학교 안 미술실에서 단순히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아이들과도 부딪혀야 하는 것이 선생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문화예술 지원단체에서 학교에 안내나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송교성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시도와 좋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재단과 민간 차원에서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변화와 방향성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변화들

- 결과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전환
- 사진 장르의 경우 핸드폰의 보급과 미디어 활용 능력의 증대로 기술적인 측면의 교육보다 개인의 예술적 감성을 살린 교육으로 변화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영상 매체와 VR, 메타버스 등의 콘텐츠 활용 증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참고자료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 감소
- 예술강사 및 아르떼 강사의 학교와 사회로의 파견으로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앞으로 10년을 위한 과제들

-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
- 소모성 재료 위주의 일괄적 기자재 배분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자재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 전문강사의 처우 개선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신뢰도 강화
- 보다 전문성을 높인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
- 단기간 결과 중심의 교육이 아닌 많은 학생이 지속해서 향유 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인식 전환과 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좋은 사례에 대한 안내와 홍보

주제 2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도의 흐름과 현장의 고민, 그리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예술강사와 학교교사, 중간지원 조직 관계자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오후 2시 30분

진행 송교성 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1층 감만사랑방

함께한 사람들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센터장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예술강사의 매칭부터 관리,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은경

부산영상예술고 교사

부산영상예술고 교사로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강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박우동

만화애니메이션 예술강사

예술강사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만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들과 사회 문화예술교육 기획, 교육 등과 관련해 17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양서임

국악 예술강사

국악 예술강사 17년 차로 학교 음악 교과서 내에 있는 국악 부분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일상에 국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재기

교동초등학교 교사

교육부가 지정한 예술이음연구학교 중 한 곳인 교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 자원의 지원과 연계한 예술강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송교성

오늘 주제는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예술강사 파견제도는 2000년에 국악강사풀제 사업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추진되어 온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사업이다 보니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변화가 많았는데, **우선 교육현장에서 느끼신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정

예술강사 제도는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총괄·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7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운영되었고,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거쳐 현재는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17년 동안 5~6년을 주기로 운영 기관이 변경된 거죠. 이 사업은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사업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연간 900억으로 팽창되었는데 여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관리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업의 모든 문제를 상위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신, 지역 단위의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에 상위기관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동

저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에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된 점은 중요한 성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 기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의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교성

두 분께서 제도의 운영 측면을 짚어 주셨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제도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예술교육이 발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두 분 말씀처럼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의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서임

저는 사립학교에서 국악 강사를 하다가 학교 예술강사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예술강사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술강사는 어떤 담당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가끔 저희를 수업 보조자 정도로 인식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매년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항상 처음부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힘들어요.



조재기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가는 아닌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예술강사님들께서 보완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예술강사님들께서 학교교육과정을 연계한 예술 수업을 구성해 주셔서, 기본 교과와 심화 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렇게 효과가 높은 지역예술자원을 잘 활용한 덕분에 작년,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공모전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학교 예술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은경

학교 예술강사 제도가 17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학교교사로서 예술강사님들과 함께 하는 '협력 수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힘들었고, 교사와 예술강사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어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은 함께 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송교성

전문 예술인들과 공교육 현장이 연계되면서 기본교과과정을 보완하는 역할은 물론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제도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을 위한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서임

요즘 아이들은 과거와 비교해 다양한 종류의 국악 곡을 배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국악을 익히고 있어 우리의 전통음악을 즐겁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 성과인 것 같아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보통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한 학기 혹은 연간

수업계획서를 만드는데 가끔 ‘오늘은 이 장르로 해주세요’하고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은 저희가 국악의 모든 장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국악은 전공별로 교육내용이 다르거든요. 저는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요청하시는 부분에 맞춰 족석에서 수업을 변경하곤 하지만, 이제 막 예술강사를 시작한 분들은 당황하시기도 해요. 학교 선생님들의 예술강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우동

저는 문화예술교육이 공교육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사례로 학교 예술강사로 활동하며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장해 대학에서 예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자격증 과정 현장 실습생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선순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은 예술강사의 강사비와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술강사 강사비는 2017년도 3,000원 인상 이후 변동이 없고, 최근 코로나 긴급지원인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또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 등이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예술강사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류기정

저는 학교 교육현장과 예술교육이 함께 변화하며 성장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사업 초반에는 ‘공교육 안에서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같은 연구가 많았는데, 이제는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진행했을 때의 효과’와 같은 연구가 많아졌어요. 학습자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는 것에 예술교육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부산에서 실시한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만족도가 높아졌고,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서부권이나 동부권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어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학생 수를 웃도는 기자재의 보급으로 학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죠. 학교 규모 별로 교보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강사의 처우 역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재기

예술강사 제도의 도입으로 예술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와 예술교육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이 성과라 생각해요. 진흥원 홈페이지도 교사가 활용하기 쉽게 개편되어서 운영하기 훨씬 편해졌고, 조금씩 체계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학교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관된 인원수의 예술강사님들이 파견되어서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학생 일부만 예술교육을 받게 되는 점이 매우 아쉬운데, 교보재와 마찬가지로 예술강사님의 파견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송교성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가 가지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성과와 문제점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술강사의 역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민은경

인문사회, 과학기술 위주의 기초 교과과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콘텐츠를 창조하는 능력이 중시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사고능력, 소통 방법을 길러주는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형화된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밖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예술강사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술강사님들도 여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박우동

저는 학교에서의 교과목 수업 외에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과 인식 그리고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예술강사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의하는 예술강사의 개념과 예술강사의 정체성이 궁금하기도 해요.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대해 진흥원과 학교, 예술강사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이런 고민은 계속될 것 같아요.

조재기

예술강사님들이 하시는 고민은 학교에서도 하는 고민이기도 해요. 규범적으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학교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예술강사님이 협력자로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가끔 수업을 전부 예술강사님들에게 맡기시는 선생님들이 있기도 한 것이 현실이지요. 방과 후 수업의 경우 학교교사가 개입하지 않고 예술강사님이 온전히 수업을 책임지시지만, 교육과정 내 수업을 편성할 때는 학교교사나 예술강사 서로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학교교사와 예술강사가 수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류기정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강사의 처우가 좋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족한 수업 기자재가 생겼을 때, 사비로 수업 기자재를 사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지역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송교성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예술강사 처우 문제나 운영에서 나타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전담하다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했고, 현재는 민간의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변화되어온 중간 지원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서임

국악강사의 경우 부산문화재단이 사업을 맡기 전에 국악협회에서 강사 배치를 했는데, 그때는 일방적으로 강사를 배치한 경우가 많아서 먼 곳으로 수업을 하러 자주 갔어요. 부산문화재단이 사업을 맡은 뒤로 인터넷을 통해 학교 선택이 가능해진 점은 좋았지만, 당시 행정담당자들은 저희가 하는 활동을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저희와 갈등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고 할 때쯤 다시 운영 주체가 바뀌었는데, 지원조직이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예술강사로서는 항상 이런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박우동

돌이켜보면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예술강사 파견이라는 운영 기관 및 지원조직의 역할만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지금의 지역센터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예술강사 중심의 역할과 대변 그리고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류기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현재 전국의 17개의 지원센터에서 예술강사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지원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17개의 지원센터와 예술강사 노조 2개 단체, 예술강사 비노조 2개 단체 그리고 운영 기관 6개 단체와 함께 논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었으면 합니다.

조재기

학교에서는 예술강사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만 대부분 접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운영 주체의 변화에 관해서는 실감이 없었어요. 저는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교와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갔으면 하고, 다른 학교들과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교성

중간지원조직의 변화 속에서 더 나아진 점도 있지만, 잦은 변화 속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강사, 학교, 그리고 중간 지원조직을 대표해서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재기

예술강사님들의 역량이 꾸준히 강화되는 것과 함께 학교에서도 예술강사를 교육자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수업 협의가 아닌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현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교육이 더욱 다양하게 제공되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술 분야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어요.



민은경

17년간 예술강사 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류기정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 부분은 중간 지원조직에서 지원해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역시 고용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아닌 강사님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어요. 강사 역량 평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업환경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간 환경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자재를 분청에 요청하면, 분청에서는 본인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 센터는 관련 데이터를 구축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교육청을 계속해서 설득하고자 합니다.



조재기

학교에서 예술이음연구학교 업무 담당자로서 3년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예술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관리자의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발전에 학교는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우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역량의 강화는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 역시 예술강사 노조, 비노조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이 예술강사의 가장 큰 고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용의 제도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서 예술강사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문제인데, 사비로 재료를 사시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진흥원과 학교에서 재료를 지원받긴 하지만 진흥원의 경우 해당연도에 재료 지원을 받은 학교는 다음 해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경우 재료 지원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재료비 지원 여부에 따라 수업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예술강사들이 양질의 예술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서임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선 강사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예술강사는 이 일 하나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서 2, 3개의 외부활동을 하는 분이 많기에 사실 역량 강화를 할 여유가 없어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럴만한 여유와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역량 강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학교마다 전자칠판으로 바뀌고 있어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전자칠판 시스템이 각기 다른데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해 전자칠판의 사용법을 잘 모르거든요.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기자재에 대해 연수를 하실 때 예술강사도 함께 교육해주셨으면 합니다.

송교성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재기

학교는 제도의 도움을 받는 처지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양서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가 너무 빨라서 선생님들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술강사님도 함께 교육 및 연수를 받으셔서 현장과의 이질감 없이 강의하셨으면 합니다.

양서임

예술강사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거나 중간 지원조직의 의견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운영 기관이 바뀌면서 조금 더 편하게 저희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점이 좋고,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했으면 합니다.

박우동

교육의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는 만큼 예술강사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부분과 역할들을 선도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또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현장에서 함께하는 분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은경

코로나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업형태와 수업 도구의 변화는 가속화될 텐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술강사님도 저희와 함께 꾸준히 변화하고 성장하셔서 학교 교육에 이바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기정

지금까지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느낀 것은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로 사업으로 시작된 예술강사 제도이지만 강사들이 더욱 정당한 대우를 받으셨으면 하고, 본질적으로는 이 사업의 핵심이 학생들이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구조로 개편되었으면 하고, 이를 위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예술강사님들과 학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송교성

네,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성과와 변화

- 2005년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거쳐 현재는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
- 예술가 일자리 창출 증대 및 공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
-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예술교육 수준의 향상
- 과거의 일반적인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기본교과과정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역할로의 변화

앞으로 10년을 위한 과제들

- 예술교육과 예술강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와 인식변화
- 예술강사를 학교 교육자의 일원으로 보는 포용력
-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 마련
- 학교 규모에 맞는 예술강사 파견과 교보재 및 재료비의 지원
- 예술강사 처우 개선 필요 (강사비, 지원제도 등)
- 변화하는 교육현장을 학교교사와 예술강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제 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변화되어온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사례와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기획자와 학교교사 그리고 관계자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5시

진행 이승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2

함께한 사람들



예정원
문화예술 기획자

문화예술기획자이자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로 교육을 겸임하고 있다.



이민경
부산문화재단 팀원

전 부산문화재단 놀이마루 운영 담당으로 현재는 기획경영실 경영지원팀에서 근무 중이다.



최윤철
상북초등학교 교사

예술꽃씨앗학교, 새싹학교 1기 금성초등학교 담당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예술꽃씨앗학교 9기 상북초등학교 담당교사로 아이들이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탁경아
커뮤니티아트센터 '숲' 대표

커뮤니티아트센터 '숲'의 대표로 2017,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2018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한영천
부전초등학교 교장

예술드림거점학교 수정초등학교의 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부전초등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다.



이승욱

오늘 주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으로 **예술꽃씨앗학교, 놀이마루 사업 등의 활동 사례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실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정원

제가 현재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용암초등학교의 예전 명칭은 대변초등학교였어요. '대변(大邊)'은 '큰 바닷가', '바다의 곳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차용해 '바다가 텃밭이라면'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 활동가와 아이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예술적으로 탐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목공과 글자를 이용한 놀이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SNS에 다양한 게시물을 올리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에서 착안해 '미스터리 드로잉 팀'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경

부산문화재단은 놀이마루가 처음 개방된 2016년에 4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했었고, 이후 2018년에 프로그램 부분만 맡아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당시 재단 담당자들은 장학사님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는데 장학사님, 예술강사님들과 토론했으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는 달리 아이들 각자의 속도에 맞추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교육청과 예술강사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프로그램을 꾸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천

지금은 위탁운영으로 바뀌었죠? 예전에 놀이마루 운영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운영하기에 다소

적은 예산이다 보니 지원업체가 많지 않아서 사업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다시 재위탁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탁경아

놀이마루 운영의 핵심은 '공유'인 것 같아요. 예술강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장학사, 예술강사, 학교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승욱

놀이마루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최윤철 선생님께서는 예술꽃씨앗학교에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철

저는 갈수록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과정을 공부한 예술가들의 제안으로 문화예술 중심의 통합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 발달단계에 맞춘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학교 교육의 관성화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후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에 지원해서 4년 동안 운영했는데 보통 예술꽃씨앗학교에서 한 가지 장르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저희는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 공간디자이너 주제라면 아이들과 동네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그것을 언어와 몸짓,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고 최종적으로 학교 곳곳을 직접 꾸미는 활동으로 진행해요. 벽화를 그리더라도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간디자이너의 의미와 개개인의 상상력이 모여 구체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사고력과 주도성을 갖추게 됩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자치회에서 장기자랑을 진행했는데, 교사의 간섭없이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였는데도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술적 감성과 소통, 창조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승욱

금성초등학교와 상북초등학교에 걸쳐 꾸준히 활동하신 이야기를 들으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탁경아 선생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탁경아

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캠프형으로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단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캠프형으로 참여한 사례를 보면 같은 프로젝트라도 담당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교육의 방향성과 수준이 굉장히 달라져요.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개방적인 담당 선생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펼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져요. 예를 들어 재작년에 하나의 그림책으로 학년 전체가 함께 작품을 만드는 '아름다운 실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작품이 눈앞에 놓이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방식이었어요. 교실의 책상을 전부 치우고 바닥에 누워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 불가능한 학교가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작품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 과정에서 담당 선생님의 제약이 많았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들 수 있는 작은 길은 터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서 아이들이 이 길을 통해 어디로 갈지 저희도 가능할 수 없어요. 제가 학교문화예술교육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흥미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부분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이승욱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예술강사와 학교교사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영천 교장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영천

저는 강서구의 한 학교에 갔을 때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곳의 일부 아이들은 꿈을 잃은 채,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서는 마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은 채로 학교 선생님과 소통하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고 이후에는 예술꽃씨앗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문화 향유 경험이 적다 보니 문화예술을 즐기는 방법이 서툰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해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수정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할 때는 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때 장단에 맞춰 흥겹게 춤추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욱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교사와 예술강사, 행정 매개자,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 혹은 그동안 해 오신 활동들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철

앞서 언급된 것처럼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교사와 예술강사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 외부 강사가 들어와 아이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준다는 측면에서 학교 예술강사 파견사업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예술강사에 대한 학교교사들의 인식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교사는 교육의 전문가이니만큼 예술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옆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기 전에 예술강사와 교사의 사전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년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술강사는 교사가 놓치기 쉬운 학생들의 관심과 예술적 표현에 대한 기획안을 빈틈없이 채워나가면서 수업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술강사나 문화예술 기획자에게 바라는

점은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기획하실 때 '예술 장르'를 한정하기보다 예술 장르 간, 교과 과목 간 '통합 프로젝트' 관점을 갖고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고, 예술강사들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학교교사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해주셨으면 해요.



이승욱

예술강사와 교사가 협업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민경 선생님께서 앞서 장학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민경

저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장르가 명확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심리적 활동이나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장르가 분명해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공연기획을 담당하던 아이들이 각 반을 다니면서 홍보물을 만들 때, 일부 선생님께서 조용히 수업을 듣지 않고 왜 돌아다니냐고 불러세운 적도 있어요. 반면에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수업의 경우 담당 선생님들께서 부드러운 수업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해요. 이처럼 선생님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경험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아이들보다 학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단에서 각 학교에 놀이마루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는 학생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참여자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배분해버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관리가 용이하니까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아이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듣지 못하게 되니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강사도 함께 힘들어지게 되는데,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승욱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소통과 협력이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교사, 예술강사,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협력의 중요성'을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정원 선생님께서도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원

저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되면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지정해주는 공간으로 가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그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아도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의 문화를 채집한 뒤 이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담당 선생님과 의논을 해요.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작은 사회로 바라본다면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예술가, 예술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학기에 이어 다음 학기에 지속해서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연속 수업을 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참여자로 볼 것인지 매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과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화예술교육이란 예술가들이 예술로서 아이들의 '삶'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풀어쓰면 '사람'이 되고, 여기서 '나'를 내리면 '살림'이 되는데, 저는 요즘 예술로서 어떻게 우리의 살림살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욱

문화예술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아이들에 대한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감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탁경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탁경아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느낀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하는 '민감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민감성을 기르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쉽지 않아요. 주변의 예술강사님들을 보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먼 거리의 또 다른 학교로 수업을 하러 다니면서 서류업무를 하고 수업 구상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술강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요구하기 어렵고, 더불어 아이들이 예민하게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강사들에게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연구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욱

'민감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언어적 감각'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영천 교장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영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가 되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해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아이들을 보며 마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 홍보자료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만든 홍보자료를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주면 좋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외부에서 지역사회, 학교, 예술강사가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생기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일수록 아이들이 활기를 잃지 않도록 문화예술교육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방과후강사가 실시간 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하드웨어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부산문화재단과 교육청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승욱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정원

최근에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자원 및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예술강사의 기능적 역할을 넘어 예술로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학교에 예술교육을 다양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달하면 학교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모델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 및 현장교육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이들이 예술가, 학교 선생님과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학교를 넘나들며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과 시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승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협력하고 연결되려면 매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매개자를 진행 보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철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철

10여 년 전과 비교해보면 예술강사와 학교교사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각 장르에 전문적인 예술강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문화예술교육을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여기에 적합한 예술강사들을 섭외하기 힘들어요. 10여 년 동안 축적된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역량을 학교 교육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들과 교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예술가, 예술단체와 학교가 함께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승욱

여러 주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한영천 교장 선생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영천

학교라는 조직은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하다 보니 다소 경직되어 있는데, 외부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으면 해요. 그리고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강사님들도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욱

예술강사들이 평소 예술가로서 문화공간에서 전시를 하거나 공연하는 형태가 익숙할 수 있는데 학생들과 만나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탁경아

저는 연구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장르의 선생님들과 협업했을 때 프로그램의 시너지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이 모인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달하는 방식의 연수보다는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였기에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민경

저는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술강사의 수준을 올리려면 강사료를 우선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예술강사님들은 수업시간만 보장받고 이외에는 수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교육 개발이 늦어지기도 해요. 놀이마루의 경우 3월 학기 시작 전 2월부터 예술강사님들과 모여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커리큘럼을 연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으로 보장해드렸어요. 예술강사님들 중에는 개발된 커리큘럼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서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 또한 장학사님과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왔고 강사님들의 만족도와 수업의 수준 역시 좋아졌어요. 두 번째로는 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단은 기관 간의 대화가 가능하지만 예술강사 개인은 기관인 학교와 의논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도 보듬을 수 있는 열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욱

오늘 학교 교육자와 예술가, 그리고 매개자들이 함께 모여 굉장히 입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술강사 제도를 통해 학교 일선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변화도 적지 않은데 이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변화

- 비대면, 온라인 등 달라지는 사회환경에 대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춘 문화예술교육의 운영으로 기존 학교 교육 보완
- 놀이마루, 예술꽃씨앗학교 등의 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등장
- 예술강사의 기능적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학교를 매개하는 역할로의 변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을 위한 과제

-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의 개선
- 예술강사와 학교교사, 매개자의 상호 협력 강화
-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교육청, 학교, 예술강사, 매개자)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의 감각으로 바라보는 교육 관점
-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인 실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 및 유연성

주제 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의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간의 흐름과 의미를 주제로 현장의 사례와 운영 방식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오후 2시

진행 송교성 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1

함께한 사람들



김정주
GachiART 대표

예술인 공동체 GachiART의 대표로 문화예술교육과 전시기획, 공공예술 등 가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같이하는 커뮤니티아트를 지향하고 있으며,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아이 팜 프로젝트', 2019 '사랑海(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태호
극단여정 대표

연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극단여정의 대표로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영도에서 떠나는 연극여정'과 주민연극 '영도할머니'를 진행했다.



양근숙
세상과 소통하기 대표

세상과 소통하기의 대표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미(남역)인(사람)들 도서관으로 가다 Go!'를 진행했다.



옥순주
함께사는 문화마을 공동체 대표

함께사는 문화마을 공동체의 대표이며, 201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룰루랄라 음악이 넘치는 덕포'를 시작으로 2018 '오.감.동.래 이야기 침선교실', '오.감.동.래 치유극장'을 진행했다.



이홍길
온누리오페라단 단장

오페라 전문 공연 제작 단체 온누리오페라단의 단장으로 2013~201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마지막 해녀'와 2019, 2021 신나는 예술여행 '응답하라 학창시절'을 진행했다.



송교성

오늘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시도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주요 단체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여하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활동 사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주

저는 2018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공공예술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민을 해결하는 '아미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일 본인 공동묘지 위에 터를 잡은 아미동 비석마을의 어두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화단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식물을 키우는 프로젝트로 2019년에는 포구를 중심으로 부산을 다시 감각하는 '사랑海(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김태호

저희는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문화예술교육에도 관심이 있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에 영도의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을 향유 기관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영도의 특성을 반영한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다음 해에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단편영화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올해는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부산 전역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양근숙

저희는 인문학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는 단체로 2016년에 강서구의 공군부대 군무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부산항 강의 후, 대상자가 직접 부산을 소개하는 책자와 지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뒤에는 동래 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학부모님들과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접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외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에서 60대 이상의 노년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 방법, 삶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교성

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양근숙

저희에게 있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사업비에 비해 진행 요건들이 까다로운 사업이라 느껴졌어요. 저희는 대상자들이 순수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동아리 형태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육순주

저희 공동체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함께 진행했는데 두 사업의 중복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생기게 되면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만

진행하게 됐어요. 사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 꿈다락보다 운영하기 까다롭고 예산도 적는데, 저희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했어요. 사업 첫해는 시장통 활성화를 위해 덕포시장 안에 사랑방을 만들어서 동네 주제를 만드는 노래교실과 민요교실, 이후로는 연극, 타악기와 난타를 접목한 프로그램, 영화치유, 한복 짓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했어요. 그렇게 2019년까지 사업 진행을 한 후 2020년과 2021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공모사업이 노동력과 비교해 기획자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한계가 있는 구조여서, 기획자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더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홍길

저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던 중에 기장의 해녀분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분들이 마지막 해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해녀'를 타이틀로 사업을 기획했고, 4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주민들이 잘 쓰지 않는 마을회관을 활용해 아이들이 해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아서 연계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송교성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역사나 장소성,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문화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주

저는 '부산에는 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범일동에 교육, 워크숍, 전시가 가능한 '크래프트 스토리'라는 공간을 8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 부산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기획자비, 강사비로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작아서 공모사업을 몇 년간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김태호

저희는 단체가 가진 특성을 여러 사람과 나누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어요.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춰 사업에 신청했고 현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양근숙

저희 단체는 원래 도서관, 학부모센터, 구청에서 역사, 문학 중심의 평생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런 교육은 지식만 전달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어요. 반면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문학, 철학, 역사를 통해 하나의 완결성을 가진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속으로 사업 지원이 가능해서 참여자들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순주

저는 타 단체의 사무장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기획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재밌다고 느꼈어요. 때마침 주변에서 단체를 만들자는 제의를 해주셔서 단체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덕포시장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과제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는데 시장 안에 공간을 만들면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시장에 오는 주민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정했어요. 이때 사업 안에 사전 조사 과정이 있어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때 만났던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데 '결이 되어주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매력인 것 같고,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교성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엮어내고 긴 호흡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혹은 개선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홍길

저는 일반 시민들이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참 좋았어요. 문화회관에 해녀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내 평생 이런 데도 와보네'라고 하셨었는데, 이분들이 프로젝트 결과발표회로 실제 공연장 무대에서 의상을 갖춰 입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던 날이 특히 기억납니다. 이날 자녀들은 처음 보는 부모의 모습에 감격했고, 해녀분들은 함께 해준 가족들의 축하 속에 자신을 위한 꽃다발을 처음으로 받으시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공연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운영하는 가게 벽에 붙이며 손님들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예술가는 공연이든 교육이든 그것을 지속하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아마추어(일반 사람)가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것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소위 경제적 부담으로 예술 활동을 시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성과라 생각합니다.



송교성

당시 공연장은 어디를 주로 사용하셨나요?

이홍길

저희는 기장의 유일한 공연장인 '차성아트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은 사업의 심사 기준이라

생각해요. 학연, 지연, 심사위원의 성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남지역까지 인력 망을 확대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의 우수단체'를 사전선정해서 이들이 다음 연도 사업을 미리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팀은 이를 통해 자극을 받게 된다면 모두가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김정주

단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각 지역의 사업수행 경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을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전수하고 알려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몇몇 예술가는 다른 사람의 기획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교육을 진행하더라고요. 또 꿈다락이나 지역특성화 사업을 학교의 선행학습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술가 스스로 격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때 보람을 느껴요. 화단 조성의 경우 꾸준히 관리되지 않으면 흉물이 되기 쉬운데 각 집의 못 쓰는 그릇을 가져와서 화단을 만들었더니, 손자하고 할머니가 '어? 우리 집 밥그릇!' 하면서 톱툰이 와서 관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손자 오면 조기 찌개 하나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할머니께서 직접 서툰지만, 정감 있는 솜씨로 음식을 그리고 '니 밥은 묵고 다니나?' 문구를 넣은 캘리그래피 엽서를 만들어서

아미동에서 판매했어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시민,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을 알아가며 이웃, 세대 간의 소통을 나눈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육순주

저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지역민들과 친해진 것이 사업의 성과라 생각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해요. 지원사업을 통해 무료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대부분 시민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공짜'라는 인식을 하셔서, 유료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재단에서는 단체들이 자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자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주 선생님 말씀대로 기획자로서 의문이 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많아서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송교성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접근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부분이 사업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근숙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근숙

저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에는 이를 다양한 교육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 및 상품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자 혼자 이 부분을 풀어내기 어려운데,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부산시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호

저는 사업 후에 참여자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게 되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해요. 영도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난 뒤 참여자들이 구청에 건의해서 연극 교실을 만들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동력을 얻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은 결국 '선택사항'인데, 앞서 언급된 것처럼 문화재단에서는 단체의 자생보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1년 안에 지역 특성을 담아내기는 어려운데, 같은 주제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중복사업으로 규정되어서 연속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1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급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재단의 장기적인 투자가 있으면 해요. 3년 단위의 기획형 공모사업이 있지만, 선정 수가 적어서 아쉽습니다.



송교성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다운' 문화예술교육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쉽게 정의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근숙

저는 '부산다운(부산다운)'이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부산은 이주민도 많고, 문화예술계 역시 새롭게 부산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운 '부산다운'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역시 문화예술교육에 소외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육순주

저 역시 지역에 한정하지 않은 새로운 '부산다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금정문화재단에서 열린 전문가 양성 과정에 참여했는데 7년 이상의 전문가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전문가 그룹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태호

문화예술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사업명 때문에 '부산다운'을 강조하게 되면 부산에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을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산다운'을 지역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주

저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 계속 유지되려면 '부산다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민이 관심이 생겨 방문할 만큼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이고, 부산의 자연환경 외에 부산 출신의 인물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부산을 알아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송교성

네, 아무래도 사업 명칭 자체에 '지역'이 들어가다 보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부산다운'이라는 개념이나 의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단일화된 것이 아닌 열린 개념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양근숙

저는 현재 부산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위원인데요, 위원회 1기, 2기에서 역사, 문학, 철학, 생활양식의 미래유산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부산문화재단과 공유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순주

지역 문화예술은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재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교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가 지방 예산으로 이양되면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대응해 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홍길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홍길

오늘 토의한 부분에 대해 재단에서 잘 적용해 주셨으면 하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부산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부산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교성

네, 오늘 바쁘신 연말에 참석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의미

- 커뮤니티아트, 연극, 인문학,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접근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 시민 대상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예술의 저변 확대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이 담긴 사업수행 가능
- 단순한 공공예술의 성격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확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

-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자 및 강사비의 인상
- 사업 심사위원 인력풀의 확대
- 사업 결과물보다 과정 중심의 평가 시스템 마련
- 문화예술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 프로그램을 콘텐츠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 지역 특성을 담아내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 마련
-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부산다운'의 개념 정립과 활용

주제 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성과와 과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활동 사례와 과제,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진행 이승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1층 감만사랑방

함께한 사람들



모상미
모미디어협동조합 대표

작가양성과 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모미디어협동조합의 대표로 10년 동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를 진행했다.



유현미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대표

민·관·학을 연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의 대표로 10년 동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며,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부산을 깨우다[열어보다]'를 진행했다.



이훈무
금정청소년수련관 참여활동팀 팀장

청소년 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위해 건립된 금정청소년수련관의 팀장으로 2013년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You Will Rock Me'를 진행했다.



정다은
인디고 서원 팀장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의 팀장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했으며,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디고 에디터 스쿨'을 진행했다.



정미숙
정미숙무용단 대표

전통춤을 재창조하여 널리 보급하는 정미숙무용단의 대표로 6년 동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몸으로 소통하는 세대공감'을 진행했다.



이승욱

오늘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활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모상미 선생님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중심으로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모상미

저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다른 단체에서 3년, 모이다아트협동조합에서 7년으로 총 10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모이다아트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수영구의 바다를 매개로 아이들과 바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역 작가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팻목을 만들어 직접 바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거나 바다 환경을 알리기 위해 작가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든 작품을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부를 해요. 저는 아이들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참여 단체들로 인해 성장한 것처럼, 저희 단체 역시 꿈다락과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이승욱

예전에 광안리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하셨는데 혹시 현재 진행하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모상미

2016년 즈음 아이들이 재활용 제품을 활용하여 만든 물건을 프리마켓에서 팔았는데, 아이들이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써가면서 자기 작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이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아이들이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2021년 크라우드 펀딩의 계기이자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아요.

이승욱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문화단체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는 말씀도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유현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현미

저희 단체는 설립된 지 10년째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시작된 첫해부터 지금까지 연속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연제구를 거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가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다시 찾아오시는 가족들이 계셔서 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하고 꿈을 이뤄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해 사업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다양한 과정으로 몇 년간 연속 진행하며 여러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4년 정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사회적 가치) 협동조합으로 다시 성장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조합원들이 마을교사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지역민들과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욱

해마다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이 생겨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계속 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변화, 확장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유현미

사업 초반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했다면, 이제는 프로그램 기획 전반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어서 참여자들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전 프로그램의 장단점, 수정·보완점, 참여자들의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승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의 소통도 중요한 이슈인데 라온은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동조합까지 마을공동체 형성의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이훈무 팀장님과 정다운 팀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훈무

저희 금정청소년수련관은 2013년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한 터라 청소년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와서 악기를 배워 곡을 만들고, 결과물로 앨범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첫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해서 2016년부터는 음원사이트에 음원을 올리고 뮤직비디오도 제작했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덕분에 수련관의 음악 스튜디오를 활성화할 수 있었고, 다양한 청소년들과 음악 작업을 하며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기도 했어요.

정다운

인디고 서원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시범 운영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문학과 영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조금씩 저희 단체 특성을 살려서 책을 출판하거나 인문학적으로 진로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저는 이 사업이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인디고 서원의 다양한 활동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많은 청소년에게 알린다는 취지 역시 좋았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성장해서 강사가 되기도 했는데 선순환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학교의 공교육이 기본적인 인문학을 가르친다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내용이나 공간, 그리고 정서적으로 학교보다 자유로워서 어떻게 보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학교보다 지역 중심적인 것 같아요. 다만 2017년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생 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기존단체가 오랜 시간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2019년부터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다음 10년

이승욱

신생 단체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나누고 활동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미숙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숙

저희는 순수예술 단체로 공연을 하며 전공자를 육성해왔는데, 우연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됐어요. 사업 초반에는 '관계'를 중심으로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현재는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표현활동인데, 단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춤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특히 장애 아동들은 신체가 균형 있게 발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기능 전수보다는 균형 있는 신체발육을 돕는 과정과 자유로운 표현활동으로 창의력을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피터팬'을 주제로 아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먼저 찾고, 이를 확장해가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현미 선생님 말씀처럼 저희 역시 한곳에서 6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 참여자들의 재참여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재단에서는 매년 새로운 수요자를 원하다 보니까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욱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다운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를 연결하고 구성한다는 점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과들이 지역에 뿌리내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그 이름 그대로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공교육과는 다른 성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생각해요. 저희 인디고 서원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출판과 인문을 다루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을 특정 개인들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전방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수혜자를 확장하기 위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게 됐던 거죠.

이승욱

인디고 서원은 다른 단체에 비해 강사와 참여자들 사이의 나이 차이도 적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자가 몇 년 후에 강사로 성장해서 다시 참여하게 되는 성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훈무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훈무

저희의 가장 큰 성과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종료되고 나서도 청소년들이 음악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거나 음악 분야로 진로를 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2015년에 참여했던 청소년이 뮤지션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이 친구를 초청해서 음악을 나누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참가자가 뮤지션이 되고, 그가 다시 참가자에게 이야기를 나눠주는 이런 긍정적인 순환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일반 학교나 학원은 음악 기술을 배워서 공연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목표지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이 과정이 끝난 뒤에도 악기의 실력과 기술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즐거움 속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과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참여자의 재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속에서 참여하게 되면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만큼 성취감도 커질 것 같은데 재단에서는 매년 새로운 참여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니, 저희 역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우수한 프로그램의 경우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욱

단순한 기능 전수가 아니라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의 성과와 함께 보완해야 할 점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미숙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숙

저희도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다 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도움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한 학생이 계속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생겼고, 이 친구를 계기로 대학 진학을 고려하게 된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는 무용 프로그램이라서 학부모나 특히 장애 아동이 스스로 찾아오기에는

장벽이 높아 대부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기존 참여자와 새로운 참여자를 5:5 정도로 구성하는데, 장애 아동의 경우 눈 맞추는 것만 해도 한두 달이 걸려요. 저희는 부모님들께도 가만히 아이들과 눈을 맞춰보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조차 힘들어하시기도 해요. 이처럼 저희는 아이들과 교감을 하고, 자주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모든 아이를 신규로 받게 되면 수업하기 어려워져요. 프로그램의 이런 특성이 수용되어서 연속으로 진행되는 심화 수업이 가능해지면 저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이들도 쫓기듯이 수업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대상자와 프로그램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결과물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이승욱

꾸준히 소통하면서 찬찬히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가 하는 단순 수치로만 평가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유현미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현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저희 센터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 성과라 생각해요. 덕분에 구청,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동시에 여러 고민도 생겼어요. 사업 초반에는 저희가 연구한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에게 전달하는 형식의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점차 지역민(학부모, 교육공동체)과 소통하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했어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문제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도 지루해진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작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배정되면서 여기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로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까?',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를 어떻게 분리하고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운영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을 좀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고, 지역을 기반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사업명을 '꿈다락 주말학교'로 바뀌서 토요일에는 신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기존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승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 그런 형식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상미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상미

저희는 예술강사, 참여자, 학부모님들이 함께 성장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상자였던 아이가 성장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아이가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한 명이라도 프로그램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이뤄낸다면 우리 프로그램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또, 저희 단체는 특히 시각예술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강사로 오시는 경우가 있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코로나와 더불어 메타버스나 AI 등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욱

다음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예산과 운영의 자율권 등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도 많은데 이에 대해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상미

어느 시점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갑자기 확대 운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후죽순으로 여러 단체가 들어오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몇몇 프로그램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오래 진행한 단체는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신규 단체는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육성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큐베이팅을 통해 신규 단체가 성장하고, 기존단체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심사받을 때 겪게 되는 힘든 부분은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10년 정도 활동을 해왔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았으면 하고, 현장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듣고 심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승욱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단체를 위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다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축적한 단체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숙

저는 진행 횟수가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의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싶지만, 소통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승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의 경우 마을공동체에서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 프로그램 이외 다른 사업을 계획하거나 지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현미

기존 참여자를 다음 해에 연속해서 참여시키려 하니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연제구 다행복교육지구에서 장학사님, 주무관님들,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마련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고, 여러 방면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를 계기로 부산시교육청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및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욱

문화예술교육 이외에 다른 분야 사업들과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훈무 선생님과 정다운 선생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훈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차별성이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것은 지켜가되 기획 방향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료증'을 만들어서 장래에 이 수료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다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재단, 단체, 수혜자가 아주 밀접하게 잘 연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재단과 단체는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단체는 수혜자에게 수혜를 주는 수행을 하죠.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틀을 갖춰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는 입시가 중요하다 보니 제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수능과 입시가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관청과 구청, 학교가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승욱

교육에서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교가 변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흐름과 성과

- 단순한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단체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담아낸 프로그램의 운영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참여자가 예술강사로 참여하게 되는 등의 선순환
- 기능 전수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창의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변화

앞으로 10년을 위한 과제

- 참여자가 연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심화 과정 마련
-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 평가 (예: 장애 아동, 유아, 고령층)
- 신규 단체와 기존단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심사의 개선
- 학교, 문화재단, 활동단체, 관청의 거버넌스 필요

주제 6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발굴과 인큐베이팅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발굴과 인큐베이팅을 주제로 활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관련 신규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활동가들이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27일(월) 오후 2시

진행 송교성 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1

함께한 사람들



국초롱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 실장

2012년 부산에서 창단한 극단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의 실장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극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학콘서트[사하촌]'을 진행했다.



김형준
그루잠 프로덕션 대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그루잠프로덕션의 대표로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마술 극단, 매니저를 모집합니다!'와 2021 '가족과 함께 마술로 배우는 공연기획'을 진행했다.



윤지은
모들 대표

2017년에 설립된 모들의 대표로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Close up! 우리가 지나간 자리'와 2020 'Make up!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를 진행했다.



이정미
세라비 대표

문화예술치유기업 세라비의 대표로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너의 명곡이 들려'와 2021 "'스토리인 뮤직'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진행했다.



최보경
덤플링스 대표

영화창작교육모임 덤플링스의 대표로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내가 칠하는 영화 팔레트'를 진행했다.



송교성

오늘 주제는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발굴과 인큐베이팅> 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단체도 있으시지만, 문화예술교육 부분에서의 신규를 의미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단체의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형준

‘그루잠’은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든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잠자고 깨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희는 주로 마술을 기반으로 연극, 미디어아트, 기타 장르를 결합한 공연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교육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극과 마임을 통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블루마블 같은 놀이모형을 개발해서 공연 제작의 과정을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정미

‘쌔라비’는 불어로 ‘인생은 다 그런 거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2019년에 문화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술 치료단체입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교육과 음악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음악치료의 접근법과 예술을 통해 참여자의 이슈를 풀어내는 문화예술교육의 접근법,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융합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2020년, 2021년에 문화예술 치유 사업‘찾아가는 문화 활동 기획형’을 진행했고, 2021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사업(가족 대상)을 진행했어요. 원래 합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족 소통’을 주제로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노래와 연주를 만들어내는 소통의 과정을 하나의 음악극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윤지은

‘모들’은 ‘모두 함께’라는 순우리말로, 저희는 미술을 중심으로 무용과 미디어,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로 소외계층과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육 단체가 많다 보니 ‘치유’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미술을 기본 교육으로 구성하고, 점차 치유와 치료가 함께 하는 융합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국초롱

저희는 2012년에 만들어진 극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대안학교와 초등학교에서의 뮤지컬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부산정보고등학교의 연극부와 ‘소테리아’라는 장애인 연극단의 담당단체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외에 정기적인 극단 공연과 JC와 협력한 전국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보경

‘덤플링스’는 만두라는 뜻으로 만두처럼 많은 것이 융합되는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올해 결성된 문화예술교육단체입니다. 저희는 ‘문화’와 ‘예술로서의 영화’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으로 지역성이 반영된 양질의 영화교육을 1년 동안 진행하기도 했어요.

송교성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별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을 하시기 된 동기**와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와 의미 등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보경

저는 ‘영화는 왜 예술로도, 교육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 ‘일단 우리라도 부산에서 영화교육 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동료들과 함께 단체를 결성했는데, 특히 저는 교직을 전공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량적인 성과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정성적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영화를 통해 조금 더 지역에 대해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과 영화작업이 가지고 있는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는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찍은 대부분 영화에 조폭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을 배경으로 하지만 다른 장르의 영화들, 예를 들어 장희철 감독님의 ‘미스진은 예쁘다’와 같은 영화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어떻게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는 신생 단체다 보니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성과를 내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초롱

저희 단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교육은 물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배우로서 존재하며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극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왜 해요? 하기 싫어요.'라고 하던 아이들이 본인도 모르게 집중해서 공연하거나 전문 연극인들도 생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처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지은

저는 부산문화재단 학교 예술강사와 장애인 복지관 지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의 대상자가 점점 확장되었는데, 일반인 대상의 교육만큼 문화 소외계층의 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 뒤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 저희의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취지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2019년 부산문화재단 인큐베이팅으로 환경을 주제로 하는 'Close up 우리가 지나간 자리'를 진행했어요. 2020년도에는 이를 확장한 'Make up!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를 진행했는데, 두 사업 모두 내부에서 먼저 시현을 하고 외부 체험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미

저는 음악 치료 분야에서 활동하기 전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치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음악치료와 문화예술교육을 하시는 분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오면서 교육에 있어서 음악치료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고,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이슈를 전문성을 가지고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문화예술교육에 담고자 노력했어요. 제가 기획한 인큐베이팅 사업 '너의 땅국이 들려'는 각자의 명곡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만의 이야기로 풀어내어 무대에서 합창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올해는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저희와 거리를 두셨던 한 참여자분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웃음과 대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문화예술교육과 음악치료가 만나서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김형준

부산은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기고 체험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단체가 2019년 4월 뉴욕에 있는 '뉴 빅토리 극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공연을 보기 전에 해당 공연과 관련된 나라의 문화나 인물들에 대해 먼저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저희 역시 단순하게 공연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닌,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경험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한국의 아이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기획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무언가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대학 공연 동아리가 자신들의 공연이나 발표회를 제작하는 것처럼 각자 역할을 정해서 보도자료 쓰고 포스터를 만들거나 장소를 대관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획·제작·마케팅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극장이라는 곳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서, 무대라는 곳이 우리의 상상력을 재현하고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송교성

네, 각자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예술 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점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교육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나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저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온종일 파티'와 같은 행사나 각종 연구 사업에서 만난 선배 단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분들께서 오랜 기간 쌓아오신 경험과 수많은 고민, 그리고 문화예술을 깊이 있게 다루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는데, 이런 교류 활동이 충분하지 않아 아쉬워요. 그리고 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보통 평일에 진행되어서 직장인은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주말이나 비대면 방식 등으로 조율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연말 혹은 연초에 참여 단체가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보경

이정미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저희는 인큐베이팅 단체라서 현장 전문가나 기관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높은 자율성이 인큐베이팅 사업의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라운드테이블처럼 다른 단체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는데, 세미나, 포럼, 워크숍,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많았으면 해요.



이정미

저도 이런 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만든 결과물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형준

저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에서 사용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교육내용이 아이들의 심리에 적절한지 궁금해요. 그래서 아동심리상담사와 함께 협업하며 자문을 받아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는 홈페이지에서 마케팅, 언론사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된 엑셀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교육사업도 이 부분을 차용해서 사업 기획 단계에서 아동 심리 전문 상담사, 문화 관련 심리상담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문화재단 혹은 공공기관에서 만든다면

‘치료’라는 사업 개념에서 조금 더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정미

사업을 수행하며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재단에서 직접 컨설팅 업체를 매칭 해주시다 보니 어떤 때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말씀해주신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현재 우리 단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가 선택하여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워요.



송교성

네, 대체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해주셨는데, 현재 재단의 관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이라 단체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요?

윤지은

저는 사업을 실행할 때 수행 단체와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수혜 기관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다른 점이 어려웠어요. 저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단에서 확장형 사업이 가능한 치매안심센터와 매칭을 해주셨는데, 막상 현장을 방문했더니 해당 기관에서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재단에서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결국 다른 기관을 추가로 매칭해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송교성

부산문화재단이 수행 단체와 문화예술교육 수혜 대상기관 사이에서 소통하는 창구로서 유연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초롱 선생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초롱

저희 극단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학력 부분에서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극단에서 3~4년 정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도 휴학생이라서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력을 학력으로 대체하여 인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했을 때 배우가 되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부산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을 보고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극단이 다음 해에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 단체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와 학생들 사이에 지속성이 담보되는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송교성

네, 사업운영에서 2~3년 정도의 장기적인 지원제도가 갖춰지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보경

저는 사업 성과에 대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아쉬워요. 성공이나 실패냐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더라도 재단에서 생각하는 성과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을 받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해주지 않으셔서 아쉬웠어요.

김형준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육 담당 선생님은 엑셀 파일에 대상자 한 명 한 명의 일주일 치 관찰일지를 적는데, 아이들의 개성이나 성격, 잘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방식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출석률이 어느 정도여야 괜찮은 건지,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각 단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송교성

아무래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과라는 것이 눈으로 확인 가능한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운영과 평가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단체가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거나, 다른 단체의 사례를 알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보경

저는 이런 아쉬움이 ‘예술’ 과 ‘교육’ 이 함께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화된 전문가들이 많은 예술 분야보다 교육 분야는 전문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송교성

문화예술과 교육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육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새롭게 진입하게 될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개인들을 위해 전하고 싶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지은

저는 강사의 처우 문제와 서류의 간소화에 대하여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되고 있지 않아요. 신규 강사와 기존 강사의 차별성 없이 매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받다 보니, 작년에 제출했던 성적증명서를 올해 제출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송교성

부산문화재단에서도 서류 간소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보경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들은 일단 부딪히며 직접 실행하며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초롱

저는 준비를 엄청 꼼꼼히 하되 부딪힐 때 ‘기획서대로 해야지!’ 하면서 기획서에만 매달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유동적으로 실행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하며 만나게

되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통해 느끼게 되는 점이 많아서 즐겁게 진정성을 가지고 부딪쳐 보셨으면 해요.

김형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교육 단체는 교육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목적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단체의 블로그 등에 활동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기획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은

저는 단체 선정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심사에 떨어졌을 경우 보완해야 할 부분이 명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강사로 오시곤 했는데, 강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심사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송교성

공모에 대한 객관성과 선정 기준의 명확성 그리고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발굴과 인큐베이팅 사례들

- 마술, 게임을 통한 놀이모델 개발, 미술, 미디어,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문화예술교육의 증가
-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치유와 치료에 대한 분야로의 확대
- 대상자에 대한 이해력 향상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의 증가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

- 효율적인 사업운동을 위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 사업 참여 단체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
- 단체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 교육전문가 등과의 협업 구조 마련
- 예술강사 신청 시 학력 제한에 대한 개선과 서류의 간소화
- 공모의 객관성, 선정 기준의 명확성, 성과지표의 개선
- 수행 단체와 수혜 기관을 조율하는 중간 역할 기관(재단)의 역할 증대

주제 7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1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속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지난날을 돌아보며 문화예술교육의 변화과정과 관련 사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하여 부산문화재단의 신규기획사업 참여 단체와 문화재단 관계자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오후 5시

진행 이승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1층 감만사랑방

함께한 사람들



김보경
프로젝트팀팬시 대표

프로젝트팀팬시 대표로 인문학, 과학, 예술이 융합된 '2021 내셔널 다, 기초학 : 우리 말해요'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했다.



김태희
지능디자인 대표

지능디자인 대표이자 2021 창의랩 아이(AI) 농악 책임연구원으로 AI와 부산 무형문화재인 부산농악을 융합한 방탈출 게임 형식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경은
부산진문화재단 팀장

전 부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담당으로 현재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남정
어린이심미교육연구회 이사

어린이심미교육연구회 이사로 '(디오티미술관)예술-놀이로 자라는 아이들 : 미술, 음악, 동작 등 통합예술 교육'을 진행했고, 현재 이점 ACS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윤정
더드림아트센터 대표

더드림아트센터 대표이자 2021 창의랩 아이(AI)농악 공동연구원으로 AI를 부산농악으로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승옥

오늘 주제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1 -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각자의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문화예술교육의 실험,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보경

프로젝트팀팬시의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팀팬시는 2008년부터 도시의 유휴공간을 발견하고 공간의 의미를 찾는 전시기획을 해오고 있으며, 2018년 '50+를 위한 디자인씽킹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_공감을 위한 공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인문학, 과학, 예술이 융합된 창의예술교육 '2019 내뽀다, 기호학', '2020 내뽀다, 기호학 : #슈퍼스타_슈팅스타@우리말해요!', '2021 내뽀다, 기호학 : 우리 말해요'를 개발·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통'이라는 큰 맥락 아래 '기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예술이 주는 창의성, 공간이 주는 공간성을 어떻게 하면 색다르고 재미있게

구상할까 고민하다가 '내뽀다, 기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창의적인 몸짓 언어 기호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으로, 키트를 이용하여 두드리고, 흔들고, 굽고, 그리고 튕기는 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제이지만 여전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 취지인 '서로 잘 듣기'를 프로그램 안에서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희

저희 지능디자인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과 예술작품 제작설치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13~14년 정도에 부산문화재단이 사이언스와 예술을 접목한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술교육 프로그램 한 가지를 함께 진행했었고, 작년부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농악과 AI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2년 동안 기획·진행 해오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육 역시 이 방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활동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김태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013~14년도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전시실에서 학생들 작품전시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현재의 교육 방식과 수업 프로그램이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김태희

사실 똑같다고 봐야 해요. 2013년도 경에는 '창의력'을 키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4차 산업혁명을 염두하여 컴퓨터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전산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두 가지가 사실 같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창의적인 발상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프로세스를 학생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조경은

저는 부산진문화재단에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부산은 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가 다수 있어서 학교의 오케스트라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같은 경우 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기능교육 중심보다는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운영 방침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레슨을 진행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전국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학교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경우 초기의 의도에서 벗어나 학생 간 경쟁 위주의 엘리트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부산이 서울보다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김태희 선생님의 AI 농악을 보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남정

저희 어린이심미교육연구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가 예술적 감수성이 가장 뛰어난 시기인데 이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유아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예술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교육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술강사님과 현장의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요즘 제한된 사업 기간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성 문제, 그리고 예술강사의 교육대상인 유아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교육자와 예술가들이 협업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욱

예술가들이 특정 장르에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르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전달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장르의 분화에 익숙하지 않고 통합적 인지를 하는 유아의 특성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유아교육의 관점과 장르에 기초한 예술 활동 사이의 간극이 더 크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최남정

그렇죠. 유아교육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통합'이자 '융합'이에요. 아이들이 춤을 추고 놀면서 뭔가를 끄적이기도 하는 거죠. 예술강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습득한 기능만 강조되면 아이들은 쉽게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아르떼나 문화재단 사업이 유아 쪽으로 확장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술로서 예술강사들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유아에게는 저희의 교육적 관점과 예술강사의 예술적 관점이 모두 필요하기에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재작년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예술강사님들이 자신의 전공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서로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문화재단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장르의 예술강사님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참여하신 강사님들께서 워크숍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이승욱

문화예술교육에서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최윤정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정

저는 디지털 미디어 설치 예술가로 8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2007년도부터 아르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만화애니메이션 예술강사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는 제주도에 있는 과학관에서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교육을 진행하다가 2016년도에 포켓몬고를 처음 접하고 가상증강현실을 교육과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산으로 돌아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재작년부터 코로나라는 환경변화에 맞춰서 미디어를 접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하는 문화예술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인가'가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방향성이라 생각하고, 그만큼 강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발 먼저 앞서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읽어 이것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할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자기가 속해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융합)할지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예술강사의 과제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욱

문화예술에서 최근 10년 동안 융복합 지원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 대상 중 하나인 과학기술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김태희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저는 AI가 단순히 공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철학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AI를 '활용' 하는 것이라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AI를 '만들겠다' 라고 하게 되면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나 AI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공학과 예술이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AI 공부를 할 때 철학을 함께 가르치는 걸 잘 보지 못했는데, 본인이 궁금해서 직접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중화시키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컴퓨터를 단순히 공학으로 보는 방식이 아닌, '리터러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리터러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쓸 수 있는데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

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과연 어떤 데이터가 / 어떤 의미를 가지고 / 어떻게 활용되었을 때 /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빅데이터, 정보를 보는 안목, 교육에 있어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컴퓨터의 활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AI 리터러시'는 '어떤 문제가 AI로 해결이 되는가'하는 것들을 생산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통찰력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AI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지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승욱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단순히 공학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통찰력과 직관력에 관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과 연결된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앞서 김보경 선생님도 말과 글이라는 언어적 텍스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감각과 기호를 활용한 예술적 소통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김보경

저는 예술가로서 예술교육에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고자 할 때, 그동안 배워온 기능교육 외에 다른 것을 시도하여 색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언어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참여자분들도 '오늘 무언가를 했다'라는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했는지 물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기능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각자의 성장배경이나 스토리를 활용하여 잠재되어있는 요소를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이를 기호로 만들고, 이 기호를 다시 몸으로 표현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점차 단순화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에 집중하게 돼요. 질문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참여자에게 어떠한 예술적인 경험을 주면 좋겠지만 ‘굳이 꼭 예술이어야 하나?’ 하는 의문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통합교육 안에서도 ‘꼭 예술이라는 타이틀로 완성되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남정

저희는 ‘리터러시’를 민감성, 감수성, 안목으로 해석해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생각해내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과정들을 저희는 리터러시라고 얘기해요. 방금 김보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문화예술교육을 하는데 꼭 터전이 예술이어야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이나 경험 그 자체가 예술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현재 AI나 디지털은 초등 교육 과정에도 들어있죠. AI와 코딩을 학습하며 이후에 자신의 삶에 이를 접목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가령, 로봇을 움직일 때조차 ‘어떤 마음으로 로봇을 대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과 문화적 소양이라는 것은 사물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문화 프로슈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승욱

기존의 전통이나 관행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접근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예술의 통념마저 넘어서는 새로운 실험과 접근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정책적 지원의 개선점, 현재 문화예술교육에서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언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남정

어느 미술관이 문화재단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한 후 여러 이유로 이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미술관에 오게 되면 미술관을 비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술관도 사립이니까 이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희 역시 그런 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다소 과도한 참여 기간 수와 참여자 수로 사업운영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1년 사업이다 보니 지난해에 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로 기획해야 해서 아쉬웠어요. 좋은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면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양질의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저희 연구진으로서 예술강사와 수업을 함께 하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예술강사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실제 수업 때 어느 부분이 잘 적용되고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해 저희가 잘 느낄 수 없는 것이 아쉬웠어요.

조경은

현장의 많은 분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다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원천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요. 이 부분은 지역 (부산문화재단)에서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풀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아르떼에서 주도하는 사업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남정

그렇죠. 그 부분은 재단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규정된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게 한계인데 내년부터 지방분권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어요. 또 하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부산 지역의 다양한 대상자들(시민)이 문화 경험치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처럼 금정구에 있는 미술관에 사하구 주민이 오고 싶어도 여기까지 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꺼려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또 교수법으로 강사 교육을 하지만 강사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고, 평준화되어 있는 강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느냐는 결국 예술강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승욱

혹시 김보경 선생님은 생각하시고 계신 고민이 있으십니까?



김보경

저희는 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사실상 만족할 만큼 경험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서도 현장에서의 체감이 부족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만큼의 공감 형성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 상상한

완전한 소통에 대한 측면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차라리 가상현실은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세상을 어떻게 구축할까를 고민하며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지만, 사업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최윤정

저도 말씀드리자면 융합 교육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무용과 시각예술을 결합한 융합 교육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시각예술 부분은 알게 경험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한 장르만 오롯이 진행할 때 느낄 수 있는 깊이 있는 예술적 경험이 타 분야와의 융합 교육에서는 그 깊이의 집중도가 얇은 단계로 끝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먼저 장르에 대한 깊은 체험이 이뤄진 이후에 융합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있는 예술적 체험을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수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흥원에서의 링컨센터 수업을 이수하신 TA(티칭 아티스트)선생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미국의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함께 연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기 때문에 무용선생님이 무용을 가르치든지 시인이 무용을 가르치든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요. 또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한국의 문화예술 융합 교육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융합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깊이 있게 지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것이 정착하고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국은 항상 새롭게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아쉬워요.

이승욱

오랫동안 성과를 축적하고 정착된 분야가 아니다 보니 그만큼 다양한 실험과 그 성과를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지원방식과 제도도 새롭게 고안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최윤정

완성된 예술만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완성이면 뭐 어때. 아이들이 과정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는데.'라는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남정

문화예술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교육의 실행 주체들이 새로운 세대의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프로그램 계획하실 때 유아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경은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적 경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과정과 소통 중심의 예술적 가치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보경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예술의 가치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일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

저 역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측면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잘하는 것 같은데 워낙 어렵고 방대한 문제이기에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대상에서 중간 매개자, 강사, 교육자, 학부모 이 부분도 명확히 정리되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욱

앞으로도 더 새롭고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변화

-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AI, 가상현실 등의 사회 이슈를 접목한 문화예술교육의 등장
- 기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경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증가
-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유아교육 분야로의 대상자 확대
- 문화예술교육 대상자에 대한 예술강사의 역할 강화

앞으로 10년을 위한 과제

-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의 흐름에 대응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사업
- 이에 따른 다양한 실험과 논의, 소통을 시도하는 접근법 필요
- 기술과 예술의 융합 및 확산에 대한 고민
- 양질의 프로그램 경우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닌, 장기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교육연구자와 예술강사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 실행 주체. 매개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
- 교육대상자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점검
- 부산의 시민들이 평등하게 문화 경험치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주제 8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2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속에서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커뮤니티 문화예술교육의 사례와 부산문화예술교육센터 교육사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오후 5시

진행 이승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1층 감만사랑방

함께한 사람들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나락한알 원장

놀이 배우는 사람의 터 민주시민교육원나락한알의 원장으로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김부련

맨발동무도서관 관장

마을 돌봄 거점인 민간도서관 맨발동무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15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마을 예술가와 함께 쓰는 드로잉 에세이'를 진행했다.



김혜정

희망세상 대표

희망이 꽃피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 희망세상의 대표로 마을신문 '반송사람들' 발행 및 청년가치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승미

영도희망21 대표

재미와 의미가 만나는 주민공동체 영도희망21의 대표로 소규모 지역 단위 교육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설기관인 '작당놀이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황정미

금수현의 음악살롱 센터장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대표이자 금수현의 음악살롱 센터장으로 201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놀이하는 산복마을 : 호모 화투스'와 2019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수정아파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승옥

오늘은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2 -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각자 활동하시는 단체와 관련된 활동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동균

민주시민교육원나락한알은 시민들이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반송인문학사업을 진행했고, 2016년과 2018년 서낙토리 프로젝트, 2017년 감지덕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최근에는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술가와 시민이 보드게임을 함께 만들어 지역을 재미있게 알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문화 다양성과 차별금지를 주제로 한 '너와 나의 만찬'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기도 했고, 그 외에도 시민들과 함께 영상콘텐츠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간혹 이런 활동을 왜 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지만, 시민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기에 이러한 교육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승옥

인문학과 문화예술 그리고 로컬리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부련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부련

저는 2009년에 맨발동무도서관 문화기획 담당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문화기획을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안착시키고자 했어요. 2009년부터 4년 동안 생활문화시범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며 도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연계해서 풀어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청소년 서비스 역량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마을에 있는 4개 단체와 협업해서 청소년부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시시콜콜-마을 밥상에 차려진 인생반찬'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외에 주민센터와 연계한 마을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승미

당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현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김부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5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동아리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아이들은 저희 도서관의 문화기획팀에서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승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해운대 반송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김혜정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정

희망세상은 투쟁하며 이루어 내야 하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단체가 전환기를 가지던 시기에 문화예술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문화다양성 사업에서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이사업을 통해 사람들과 논의하는 방법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도서관을 함께 이끌어 나갈 핵심 인력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헌신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부산문화재단과 50대, 60대의 고립감 / 연결 / 쏘모를 키워드로 한 '5060 되찾기, 나 여기 있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는 세대들의 아프고 외로워지는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던 중에 발레를 배워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좋은 기획자를 만나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발레의 기본은 두 발로 잘 서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 후반기 역시 두 발로 잘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나네요. 지역공동체 안에서 전환을 시도해야 할 때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 문화예술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옥

발레는 현대무용보다 굉장히 양식화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비일상적인 발레를 통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되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승미 선생님과 황정미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미

영도희망세상21은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뒤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고, 이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어요. 당시 동아리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지역 강사로 활동하시거나, 청소년 뮤지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지역 활동가가 되기도 했어요. 현재는 영도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해서 지역 강사를 매칭시키거나 주민 공모사업에서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예술로 단단하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정미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는 2009년 동아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통합논술지도사를 배출하며 만든 모임이에요. 결성 초기에 모임 기반이 약하고 거점 공간이 없어서 소멸될 위기가 있었는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마당'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알게 된 분과 함께 매죽지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들께 그림책을 읽어드리며 인형극을 함께 만들었고, 그때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님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셨어요. 덕분에 전문가와 함께 높은 수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금수현의 음악살롱'은 정책적으로 지어진 공간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산복도로에 있어서 방문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교수님을 모셔서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댁에서 화투를 치신다고 커뮤니티 문화센터에 나오지 않는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놀이하는 산복마을 : 호모 화투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1년 동안 진행했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는 덕원중학교와 선화여자중학교 아이들이 동네 할머니들의 옛날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로 극본을 직접 써서 인형극을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어머님들과 함께 그림자인형극을 만들어서 공연하고 있고, 80대 할머니들을 주민 강사로 모셔 이분들의 직업 경력을 살려서 조개 까는 방법, 꽃다발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주민강사 프로그램도 진행했어요. 그때는 별도의 강사료도 책정해 드렸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낸다는 것에 성취감을 크게 느끼셨어요. 2017년에 '한·영 콘퍼런스 : 창의적 나이 듦(Creative Ageing)'이 개최될 당시 영국 커뮤니티아트 전문가들이 방문하셔서 이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이후에 우리 사례가 아시아 대표 사례로 실렸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특별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성취해나갈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덕분에 제 삶도 행복해졌어요.



이승욱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예술가나 전문가의 역할과 시민의 주도성 사이에서의 균형과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의 경험들에 비춰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정미

전문가, 예술가가 직접 시민을 만나서 교육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저 같은 매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획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가와 함께 시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시민 매개자를 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동규

저는 그렇게 양성된 기획자들이 어디로 가는 건지 매번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곳에서 기획자가 양성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승미

실제로는 어렵다고 봐요. 양성된 기획자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기획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많은 기획자가 사업에 결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김동규

최근 저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산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풍부하게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고, 일부분은 수혜자에서 벗어나 중간매개자가 되기도 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곳이 없다 보니 이분들이 역량을 펼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중간매개자들에게 실제로 사업을 실행할 기회를 줘서, 중간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을 실행할 때, 사업비 대신 강사비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비를 다른 방법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서 기획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승미

저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을 할 때는 지역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강의하듯이 수업을 하는 기획자들이 더러 있는데, 지역민과의 관계성을 놓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자가 지역에 잘 스며들 수 있는 사업으로 매칭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욕구를 잘 살피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활동가들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이승욱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커뮤니티 활동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부련

저희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체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로 만들고자 해요. 마을 도서관을 거점으로 10년 정도 문화예술교육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며 느낀 중요한 요소는 '지역성'이었어요.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과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고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청년마을놀이터를 거점으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실험적인 활동을 진행할 때, 이런 활동에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역과의 연계와 같은 지역성에 관한 부분이 성과지표로 들어있어요.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제시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분 중에는 단순한 향유자로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예술을 충분히 경험하고 향유하는 시기를 거쳐야 문화의 생산자가 될 텐데, 여전히 외부에서는 주민들이 문화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하는 거죠. 현재의 의식 수준에 적합한 양질의 문화예술사업과 전환예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단체가 중앙 혹은 동 단위의 외부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과 인력에 대한 문제가 항상 뒤따라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양성된 기획자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일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승욱

우리가 시민이라고 마치 하나의 범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관심과 정체성을 가진 복수의 존재들인데, 이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서 다양성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김혜정

저희도 주민교육을 많이 진행하는데 가끔 일부 교육자나 기획자들은 주민을 활용해야 한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주민역량 강화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혜자와 생산자를 넘나들지 않고 생산자의 역할만 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금세 교육에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발레

프로그램이 성공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유' 예요. 지금까지 문화재단 사업은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회차별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이번 사업은 재단에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저는 좋은 기획이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에는 71개의 마을건강센터 있는데 여기서 주민센터의 간호사, 활동가, 연구소 담당자가 협력해 건강을 주제로 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이 우울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의 키워드는 '외로움' 과 '고립감' 이 되지 않을까 해요. 마을에서 공동체와 문화예술이 만났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로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마을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동균

코로나 시국에서 세대별로 활용하는 매체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승욱

끝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담아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 혹은 제언해주실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부련

저는 커뮤니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려면 기획자와 매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개자가 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결국, 지역의 현안을 풀어내는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에게 어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술가-매개자-기획자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한 뒤 기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년 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경우 1년 차는 주민과 매개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승욱

올해 처음 시행한 3년 차 지원사업에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정미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정미

주민이 강사가 되어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을 때, 그동안 배운 것을 펼칠 수 있어 참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 유명한 강사를 데려오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의 이견도 있지만, 저희 센터처럼 마을의 커뮤니티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매개자가 있어서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주민강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이송미

저는 몇 년 동안 '성장'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는데, 언젠가부터 주민들을 계속 성장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주민이 매개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진심으로 매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주민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리고 지역의 평생학습관에서 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통해 많은 강사가 양성되고 있지만, 막상 그곳에서는 그들을 채용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에서 아쉬운 점은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신청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수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공모사업에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균

저도 행정 편향적 서류 작성 시스템이 간소화됐으면 해요. 이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기획'도 허용해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욕구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기획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두면 이런 욕구를 잘 반영할 수가 없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실험성과 유연성이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혜정

사람들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왜 동네가 아닌 도시의 중심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주민센터처럼 동네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있었으면 해요.

김부련

최근까지 문화예술교육에서 '대상자의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각기 다채로운 대상자들을 통합하지 않고 '대상자의 차별화'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이승욱

지난 20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사업이 형식적으로 많이 발전해왔고 올해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3년 연속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단순히 양적 축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을 바꾸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직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커뮤니티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 커뮤니티 활동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문화예술 교육의 등장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커뮤니티 목표의 실현 및 연결망 구축
- 대상자의 '통합' 접근에서 '차별화' 접근으로의 인식변화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 문화예술 향유자(수혜자)에서 매개자, 생산자로의 성장
- 기획자, 대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필요성 강화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위한 과제

- 예술가와 시민을 이끌어나가는 기획자, 매개자의 양성
- 양성된 기획자, 매개자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 동네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
-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서류 간소화
- 사업의 다양화와 자율성을 통한 시민과 커뮤니티의 욕구 충족
-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성과지표
- 단계별 커뮤니티 기획을 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 마련
- 달라지는 세대 간의 매체를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주제 9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간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10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변화와 시도에 대해 예술교육 전문가, 교수, 연구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오후 2시

진행 이승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1층 감만사랑방

함께한 사람들



김동희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문화다양성을 연구하며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현하는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으로 2021 문화다양성도시 정책포럼에서 "문화다양성과 찾아가는 학교예술교육" 주제를 발표했다.



류미향

동아대학교 교수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 컨설팅 및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서상호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2006년부터 대안공간 오픈스페이스 배를 운영하며 역량 있는 신진작가 발굴, 기획전시 유치 등의 지역 예술계의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해왔으며, 현재는 부산문화재단의 생활문화본부장을 맡고 있다.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선임연구원

부산민예총 정책위원장을 거쳐 금정문화재단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이욱상

오픈스페이스 배 팀장

부산의 대표적인 대안문화공간 '오픈스페이스 배'의 팀장으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력양성 프로그램 A.B.C 스쿨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승옥

오늘 주제는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으로 **지난 10년간 지역 현장에서의 활동과 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적 변화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각각 활동하고 계신 분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동희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는 시민과 함께 문화다양성과 교육학을 주제로 연구하고, 교안을 만드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교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직접 교육을 실행해보면 좋겠다 싶어 학교 교육이나 모집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주제를 문화예술교육에 접목해서 문화다양성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나가 수업을 진행하거나 모집을 통해 시민 대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강의식 수업 대신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토론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도 있고, 아예 교안 자체를 연극놀이 형태로 기획해서 아이들이 직접 놀이하듯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미향

저는 작년부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컨설팅을 시작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실제 참여했던 연구 책임자, 시행했던 예술강사, 참여했던 유아교육기관장 및 유아교사들을 만나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점과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도 진행했었는데 기관 자체의 비전이나 방향성 없이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상 일반 문화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에 비하면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예술강사와

유아교육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질적으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시설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동일한 주체인 영화의전당과 사립미술관 DOT 미술관이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의 효과 확산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원항미

저는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부산 예술의 실태나 부산시민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금정문화재단 문화소통팀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도에 당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는데, 금정구의 모토인 세계시민교육수도에 맞춰 금정문화재단에서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세계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했어요. 유아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생기록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 글쓰기, 드로잉으로 타인을 표현하면서 지역예술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영국문화원과 공동주관으로 '2017 한·영 컨퍼런스 : 창의적 나이툼(Creative Ageing)'을 개최해서 당시 이슈였던 노인문화예술 교육을

주제로 한국과 영국 간의 사례를 비교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금정구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점베, 아프리카 댄스를 배워 축제로 연결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서상호

저는 현장의 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재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예산과 제도에 있어서 학교와 사회문화예술 교육 각각의 현장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주강사와 보조강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10개 내외의 범주로 진행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50개 미만이고,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10개 미만입니다. 그 단체들이 소외계층, 지역특성화, 꿈다락, 유아교육 사업까지 진행하는 구조인데 현장의 단체들이 더욱 다양하게 성장하고 전문화되어 확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옥상

저는 고등학교 미술교사이자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20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며, '대안성', '혁신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개념과 시각을 기본으로 하는 융합 프로그램을 주로 기획해 왔어요. 초창기는 대부분의 단체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함께 그리거나 만들어보는 것, 노래나 연주, 공연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례 발표나 컨설팅, 심사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기획이

좋은 프로그램도 실행 단계에서 모집인원을 다 모으지 못하거나 계획했던 공간과 소통이 잘되지 않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 선정의 핵심 요소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향후 발전적인 10년을 위해서는 단체의 역량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낮은 강사비와 불안정한 활동 환경을 개선해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인력들이 지속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승욱

각자 활동을 소개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나눠 구체적으로 성과에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육상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은 진행된 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학생 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거의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선정된 학교에 4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연속 지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생님들의 충분한 의지와 참여가 없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한 번은 현대미술관에서 했던 AI 농악 프로그램을 한 학교에서 진행했는데, 예술꽃씨앗학교라고 하니 아이들은 노래 부르고, 악기 배우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실에 앉아서 수업만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단체가 교육해도 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진행에 한계가 있어요. 아동이나 유아 프로그램은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간섭을 받고, 학교에서 일하는 예술강사들은 교사의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아요. 부산 시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려 수준이 올라가면 단체들의 역량과 수준도 저절로 향상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승욱

비단 예술꽃씨앗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결국 강사와 참여자, 매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향미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예술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1년 동안 그 학교의 수업이 행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일 수 있다고 해요. 학교 행사가 있어 수업이 취소되었을 때, 예술강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와 예술강사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코디네이터가 없다 보니 서로에 대한 몰이해가 깊어지고 있어요. 매개자가 없는 이상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계속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예술강사 관리는 아르데에서 하니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술가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현장이 이를 따라가지는 못하죠. 또 정작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요구를 할 의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이런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육상

사업의 성과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술꽃씨앗학교 사업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와 예산이 끊임없이 투여되니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죠. 다만 예술강사에 대한 학교와 교사분들의 인식, 관심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목적과 방향성, 예술강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한 공문이나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학교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예술강사님들의 특성과 현상을 파악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승욱

유아문화예술교육은 다른 학교 교육처럼 제도화되지 않았고 비교적 새롭게 시도되는 영역이라서 류미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류미향

유아 대상의 시범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부터 전국 단위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17개의 지역 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짧은 역사를 가진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사업이 단지 유치원의 특색을 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아 모집에 홍보가 되고, 학부모의 호응도 좋으니 일종의 부가적인 서비스로 인식되어서, 아이들의 교육문화를 바꾸겠다는

관심이나 시도가 지속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사업 기간이 1년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연구를 통해 연구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지속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워요. 유아문화예술교육은 진행 횟수가 많지 않고, 특히 올해는 8차시 정도만 운영되어서 강사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워요.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예술강사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워지는데,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상호

유아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설 유치원, 사립기관들과 문화예술로의 접목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뿐만 아니라 수익구조와 같은 경제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겠죠. 그리고 유아문화예술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단지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생각하게 하는 것과 문화예술을 통해 사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미향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성을 위해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문화시설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시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어야 해요. 단지 아이가 새로운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했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확장되려면 문화예술교육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확립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시설, 행정기관, 유아교육 관련 다양한 기관(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간의 교류와 취약계층의 참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조건이 열악한 기관에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문화시설로 직접 가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청도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소수의 기관만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 구조인 거죠.

이승욱

학생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이외에도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말씀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향미

제가 그동안 참여한 사업 중에서 시민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당시 선도적인 사업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도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마을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지역의 문제 혹은 커뮤니티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으로 해결한다는 '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죠. 사업의 2차 심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사회 등의 층위로 나눠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대상을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시민문화예술활동트렌드조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살펴보니, 30, 40대 육아를 하는 여성의 여가시간이 제일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이러한 빈틈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대를 채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희

저희는 교안을 짜서 학교에 나가거나 모집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몰입도도 아주 높아요. 아마도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겠죠. 사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안을 기획하는 초반 작업이 가장 힘이 듭니다. 저희 연구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다 문화예술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술강사분들을 모집해서 문화다양성 워크숍을 진행한 후 함께 교안을 구성하거든요. 서로가 그동안 진행해온 방식이 달라서 초반에 소통할 때 각자 이해하는 부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거나 수업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교안 작업을 많이 해본 예술강사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창의적인 교안을 기획하고 수업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호

저는 5, 6년째 문화예술교육 사업 자격증 관련 수업을 3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안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시도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발표하고, 서로 평가를 합니다. 이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교육학이나 교육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만들어내요. 물론 그중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권유 등으로 이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겠죠. 저는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전공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가치확산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양성이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겠지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옥상

지난 10년간 부산문화재단의 많은 연구와 예술단체들의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현재는 그동안 발굴되고 논의된 개념들이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새로운 매체로만 대체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의 앞으로 10년을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지속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체계화시켜 확산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새로 진입하는 세대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해볼 단계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제도 이제는 세계시민의식, 난민 문제 등과 같이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욱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10년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시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과제일 듯합니다. 포괄적인 주제여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소중한 경험과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을 위한 과제들

- 공공문화시설에서의 유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인식변화
-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신생예술단체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며 예술단체들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예술강사와 교사 사이, 혹은 예술강사와 기획자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급의 인력 필요
-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변화
- 소수의 기관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고려
- 과거에 수행했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주제 10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의 역할과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의 역할과 관계를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향후의 과제에 대하여 문화재단과 센터 관계자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일시 2021년 12월 27일(월) 오후 2시

진행 이승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장소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1

함께한 사람들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센터장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예술강사들의 매칭과 관리, 강사의 수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연

전 부산문화재단 본부장

전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으로 현재는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강사로 금정문화재단 지역전문인력 양성과정 워크숍 강사로 참여했다.



이정형

금정문화재단 팀장

금정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2016년에 설립된 금정문화재단의 지역문화팀 팀장을 맡고 있다.



최의덕

부산진문화재단 팀장

부산진구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깃들 수 있도록 2020년에 설립된 부산진문화재단의 예술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다.



하경희

부산문화재단 팀장

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부산문화재단의 재정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다.



이승욱

오늘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의 역할과 관계>를 주제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참여하신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지원조직의 역할, 사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제언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기정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류기정

예술강사 제도는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수십 년 동안 양적으로 팽창된 사업입니다. 저는 문화재단의 예술강사 컨설팅에 3번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의 평가 이전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외부 평가만 실시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이 발생해도 해결이 쉽지

않아 예술강사, 학교교사, 관계자 모두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질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승욱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술강사를 관리하던 업무가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로 이양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류기정

2017년에 이양받아서 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예술강사 제도는 2006년에 시작됐는데 중앙에서 6년, 부산문화재단에서 6년 정도, 민간단체에서 5년 정도 운영했어요. 중앙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아직 안정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임시방편하고 있지만, 운영 기관의 재원이 여러 곳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의 생각이 서로 달라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신뢰 관계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승욱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지만, 정책이나 제도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연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연

2011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개소하고 2013년 감만동으로 이전했을 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이 국·시비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해요. 당시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강사는 단순히 학교에서 문화예술 수업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서, 광역센터에서도 예술강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일점이 없었어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이 세워지면서 기반 구축 사업비로 약 20억 정도 확보가 되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예산이 기존의 8억에서 2배 늘어난 16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꿈다락 사업참여 단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지요. 저는 정부가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세웠음에도 지역분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2022년은 2023년부터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광역센터의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승욱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전달되는 국비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변화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많을 텐데 하경희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경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2005년도에 제정되어, 2006년도에 시행되었고 부산문화재단은 2010년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중앙 법령에 준거한 예산 지침과 사업유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지역의 자율성을 살린 사업을 유연하게 펼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부산문화재단의 문화교육팀으로 귀속되면서 '조직'이 아닌 '사업'의 형태로 운영 방식이 바뀌었는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준거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센터가 사업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자원의 네트워크, 지역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책사업이 상향식으로 전환이 필요해요. 지역의 작은 단위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법적 제도를 만들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하죠. 재단 역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펼칠 수 있는 상향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욱

부산문화재단이 조직재편을 하면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생활문화본부 내로
재편성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시민 중심의 문화활동들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역과 밀착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정형

저희 금정문화재단은 아직 재정이 열악해서
독자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 지원센터의 관계에서 겪는 하향식 사업구조의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욱

부산의 경우 기초재단이 금정구와 부산진구 두 군데
밖에 없어서 수도권처럼 광역과 기초재단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새로
출범한 부산진문화재단의 최의덕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의덕

저는 극단 자갈치라는 예술단체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했었는데 당시는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관리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단체에서 저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연극을 가르쳤는데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하기가 힘들었고,
어떤 지원이나 컨설팅이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예술강사 사업이 압도적인 예산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기초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해진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창의성 교육을 우선시하고,
일상생활문화의 범주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이
기초재단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승욱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에 밀착하기 위해서는
기초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두 분 모두
강조하셨습니다. 예술강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학교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류기정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류기정

저희 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술강사 사업 중 일부는 기본 교과 수업으로 교사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교육과정 안에 예술강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예술강사가 협력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와
강사의 시각차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5년 동안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부산을 동서로 나뉘었을
때 흔히 학군이 좋다고 여겨지는 동쪽보다 서쪽이
만족도가 더 높아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악기 수가
모자라고 악기 상태도 좋지 않으니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광역은 이런 환경 속에서 기초

생태계를 어떻게 고르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일부 사업에서 단체와 학교를
매칭시켜 4~5년 정도 지속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지역 생태계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해서, 부족한
것과 강화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의덕

예술강사와 학교교사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만으로 소통의 문제가
다소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교육청의 '부산진구다행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맡고 있는데, 학교에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재단에서도 이처럼 마을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승욱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생활문화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분들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미연

생활문화로서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게 되면
커뮤니티아트를 통해 참여예술의 활성화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생활예술동아리 중심의 지원사업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적으로 '학교'
와 '사회'로 나뉘어서 개념화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부산을 지역적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역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저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예술가가 교육자로
전환되어 예술로서 실천적 교육의 역량을 펼치기
때문이에요. '평생교육', '생활동아리 사업' 같은
사업에서도 예술을 애매하게 다루다 보니, 정작
예술가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예술교육을 면밀하게
수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시민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교육은 다시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데, 재단에서 학교와 공동체와
연결되는 실험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경희

저는 예술가와 일반 시민이 교육적으로 함께하기
위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이 인적
소프트웨어와 물리·공간적 자원들을 플랫폼화해서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 활동가,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정형

이미연 선생님 말씀처럼 생활예술, 생활문화동아리, 평생학습, 문화예술교육은 명확한 경계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정립해서 생활문화의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재단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광역재단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기초재단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에서 진행하면 지역에서 기초재단과 광역재단이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류기정

예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예술강사들이 듣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술강사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전준비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수에 대해서도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니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강사들의 역량 강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문화예술팀 담당자는 공인노무사인데,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교육의 내용과 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강사 관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최근에 금정문화재단에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은 10년 이상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과정이었어요. 예상보다 정말 많은 예술강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이론과 실습 강연을 들으셨는데 그동안 부산에서 이런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이런

교육에 목말라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이승욱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자리 잡고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가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에 대해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미연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양적으로 많이 확장되어있는데, 학교 예술강사 사업은 지금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공공조직에서 직원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민간에서 적어도 4~5명이 함께 고민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교육 부분에서 교육청, 일선 학교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가면서 협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은 부산의 문화 지형을 잘 살피면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에 맞는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분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하위 기관이지만 현장에서 예술강사님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역할 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실무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하경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는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의덕

저는 예전에 사업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들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모니터링이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아니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컨설팅 개념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반딧불이 사업에서 어떤 분이 '공간을 운영하는데 꼭 지역성에 배점을 높게 줘야 하는가? 우리는 예술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한 가지 기준이 아니더라도 지역성 혹은 예술성 등 특화된 주제에 맞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형

앞으로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런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피부를 맞대 봐야 호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승욱

지난 20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지원조직의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매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조직의 향후 과제들

- 현장의 안정적인 구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 컨설팅
- 운영 기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안정감과 신뢰감 조성
- 지역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상향식 사업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광역과 기초재단의 협력
- 문화예술교육으로 작은 단위의 문화생태계 형성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
- 일상생활문화의 범주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으로 기초재단의 역할 강화
- 예술강사, 예비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명확한 지역적 합의
- 지역자원과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2023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센터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분권화
-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한 교육청, 학교와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 부산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부록. 주제별 대담 참여자 명단

주제 1. 학교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변화와 흐름

권은화 (국악 예술강사)
김인영 (센텀고등학교 미술교사)
노하나 (사진 예술강사)
이연정 (무용 예술강사)
조영숙 (공예 예술강사)
모더레이터 송교성(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주제 2. 학교 예술강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센터장)
민은경 (부산영상예술고 교사)
박우동 (만화애니메이션 예술강사)
양서임 (국악 예술강사)
조재기 (교동초등학교 교사)
모더레이터 송교성(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주제 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

예정원 (문화예술 기획자)
이민경 (부산문화재단 팀원)
최윤철 (상북초등학교 교사)
탁경아 (커뮤니티아트센터 ‘숲’ 대표)
한영천 (부전초등학교 교장)
모더레이터 이승욱(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주제 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의미

김정주 (GachiART 대표)
김태호 (극단여정 대표)
양근숙 (세상과 소통하기 대표)
옥순주 (함께사는 문화마을 공동체 대표)
이홍길 (온누리오페라단 단장)
모더레이터 송교성(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주제 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성과와 과제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유현미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대표)
이훈무 (금정청소년수련관 참여활동팀 팀장)
정다은 (인디고 서원 팀장)
정미숙 (정미숙무용단 대표)
모더레이터 이승욱(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주제 6.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발굴과 인큐베이팅

국초롱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 실장)
김형준 (그루잠 프로덕션 대표)
윤지은 (모들 대표)
이정미 (쌔라비 대표)
최보경 (덤플링스 대표)
모더레이터 송교성(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주제 7.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1 –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김보경 (프로젝트팀팬시 대표)
김태희 (지능디자인 대표)
조경은 (부산진문화재단 팀장)
최남정 (어린이심미교육연구회 이사)
최윤정 (더드림아트센터 대표)
모더레이터 이승욱(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주제 8.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2 –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나락한알 원장)
김부련 (맨발동무도서관 관장)
김혜정 (희망세상 대표)
이송미 (영도희망21 대표)
황정미 (금수현의 음악살롱 센터장)
모더레이터 이승욱(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주제 9.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김동희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미향 (동아대학교 교수)
서상호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선임연구원)
이육상 (오픈스페이스 배 팀장)
모더레이터 이승욱(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주제 10.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의 역할과 관계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센터장)
이미연 (전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이정형 (금정문화재단 팀장)
최의덕 (부산진문화재단 팀장)
하경희 (부산문화재단 팀장)
모더레이터 이승욱(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다음 10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주년 기념 대담집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051-745-7283
www.bscf.or.kr

발행인 강동수

기획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발행일 2021. 12.

운영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제작 (주)광안리사람들

※ 본 대담집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주년 기념을 위해 (재)부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재)부산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